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43 NO. 5

2024. 12.

ISSN 2734-1127(Online)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3권 5호 (2024년 12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Contents

- A Review of Milgram's Obedience Studies:
Recent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in Contemporary Society
..... Jaeshin Kim
- Trajectories of Job Burnout Among Korean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Study Using Latent Growth Analysis (LCGA)
..... Yejin Kim · Shi Hyeong Kim · Dasong Jung · Dong Hun Lee

Published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3
권 5
호

목 차

- Milgram의 복종 연구 개관: 최근 연구와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
..... 김재신
- 코로나 시기 한국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궤적 분석: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이용한 종단연구
..... 김예진 · 김시형 · 정다송 · 이동훈

한국심리학회

한
국
심
리
학
회

발행처: 한국심리학회 인쇄일: 2024년 12월 25일
발행인: 최훈석(성균관대학교) 발행일: 2024년 12월 25일
주소: (04778)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서울숲 한라에코밸리 906호 제작처: 책과공간(02-725-9371)
전화: 02-567-0102 팩스: 02-738-0104
홈페이지: https://www.koreanpsychology.or.kr

편집위원장: 나진경(서강대)
부편집위원장: 권미경(서울여대) 김가원(서울대) 김주은(충남대) 박지선(숙명여대) 서해나(서강대) 신지은(전남대)
장혜인(성균관대) 조승빈(부산대) 차욱균(성신여대) 최지영(인하대) 최해연(충북대) 최혜원(경희대)
편집위원: 배대석(영남대) 박성현(서울불교대학원대) 한영석(호서대) 허태균(고려대) 송현주(연세대) 김채연(고려대)
서경현(삼육대) 조성근(충남대) 한영주(벚꽃바기독교세계관대학원) 강정석(전북대) 남숙경(국민대)
최이문(경찰대) 서보경(울지대) 정은경(강원대) 김수영(이화여대) 신민섭(서울대병원)
편집간사: 이인영(서강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은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연 4회(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 간행되며, 심리학 분야의 창의적인 이론연구, 논쟁을 정리하는 개관연구, 심리학의 여러 하위분야의 공통적 관심이 될 수 있는 실증연구, 그리고 측정 및 연구방법론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issued four times a year, publishes theoretical papers, empirical research crossing subdisciplines, and measurement and research methodology. Inquiries concerning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by e-mail to the Edit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edit@kpsy.or.kr

Editor: Na Jinkyung E-mail: jinkyung@sogang.ac.kr
Associate Editors: Kwon Mee-kyung, Kim Kawon, Kim Jueun, Park Jisun, Suh Hanna, Shin Jieun,
Chang Hyein, Cho Seungbin, Cha ok-kyun, Choi Jiyoung, Choi Haeyeon, Choi Hyewon
Consulting Editors: Bae Daeseok, Park Seonghyeon, Han Yeongseok, Heo Tae-gyun, Song Hyeonju, Kim Chaeyeon
Seo Gyeong-hyeon, Jo Seong-geun, Han Yeoungju, Kang Jeongseok, Nam Suk-gyeong,
Choi Eimun, Seo Bo-gyeong, Jeong Eun-gyeong, Kim Sooyeong, Sin Minseop
Editorial assistant: Lee Inyeo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06, Seoul Forest Halla Eco Valley, 25 Ttukseom-ro 1-gil, Seongdong-gu, Seoul, S. Korea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투고논문 작성 안내

- (1) 학회지 게재논문의 성격: 본 지에서는 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이론연구, 논쟁을 정리하는 개관연구, 측정 및 연구방법론 논문, 또는 실증연구를 게재할 수 있다. 실증연구의 경우에는 심리학의 여러 하위분야의 학자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이 될 수 있는 실증연구들로 게재를 한정한다. 특히, 자기 보고라는 단일 방법에 의한 1회성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한 연구(single source, cross-sectional, self-report survey design 연구) 논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과학회에 걸쳐 공통 관심사가 되는 주제(예,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심포지움의 주제)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도 있다. 끝으로 해당호에서 논쟁적인(controversial)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실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2) 논문작성의 언어: 한글 논문을 원칙으로 하나 영어 논문도 게재 가능하다.
(3) 논문작성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HWP를 사용한다. 논문작성의 상세 양식은 한국심리학회 저술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 2판(2012, 박영사)> 과 APA논문 작성 스타일을 따라 작성하며, 2020년 6월부터 투고되는 논문은 참고문헌과 본문 안의 참고문헌 인용 표기를 모두 로마자로 하며 APA 표기법을 따른다.
(4)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본문앞 초록과 참고문헌뒤 초록, 5개 이내의 주요어를 포함해야 한다. 본문 앞 초록은 본문과 같은 언어를, 참고문헌 뒤 초록은 본문과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예로서, 본문이 영어논문이면 참고문헌뒤 초록은 한글로 한다. 영문초록은 미국심리학회의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PsycINFO'에 실리므로 미국심리학회(APA) 출판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한다.
(5) 논문의 길이는 15-20페이지 이내를 권장한다.
(6) 본문은 휴먼명조체 10호 크기로 하고,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0으로 하여 작성한다. 본 학회지의 한 페이지에는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0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7) 그림이나 표가 있는 경우 HWP file에서 본문과 함께 바로 열릴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그림이나 표는 각 페이지의 상단 또는 하단에 밀착한다. 그림은 흑백으로 작성하여 명료하게 인쇄될 수 있어야 하며, 흐린 선, 가는 점선, 계조 흑백(예를 들어, 회색), 색채 등은 인쇄상의 문제가 있으니 피하기로 한다.
(8) 논문의 접수: 한국심리학회지: ACOMS+ 투고 시스템 (https://acom.accesson.kr/kpageneral/oprs/main/jmlMain.do)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투고한다.
(9) 문의사항 접수: 논문 양식과 관련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이메일로 연락한다. (E-mail: edit@kpsy.or.kr)

한국심리학회지

일 반

제 43 권 제 5 호

Milgram의 복종 연구 개관: 최근 연구와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 김재신	369
코로나 시기 한국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궤적 분석: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이용한 종단연구 김예진 · 김시형 · 정다송 · 이동훈	395
부록 1. 논문게재 관련서류	i
부록 2. 논문작성양식	iii
부록 3. 임원진	vi

한 국 심 리 학 회

Milgram의 복종 연구 개관: 최근 연구와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

김 재 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Stanley Milgram(1963, 1965, 1974)의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은 연구 중 하나이며, 그 학문적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관련 연구와 논의를 개관하고, 특히 2010년대 이후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을 고찰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Milgram 복종연구와 관련 논의를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둘째, Milgram 복종 연구의 기본적인 실험절차와 결과, 학계의 초기 반응을 개관했다. 셋째, 연구윤리, 연구결과의 일반화, 이론적 설명 등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넷째, 201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재현방법과 스탠리 밀그램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관련연구와 논의가 주는 시사점을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요어 : 권위, 복종, Stanley Milgram, 팬데믹, 기후위기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7585).

† 교신저자: 김재신,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E-mail: jaeshin@tutamail.com



Copyright ©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960년대 초 처음 발표된 Stanley Milgram (1963, 1965, 1974/2009)의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과 비판을 낳은 연구 중 하나이며, 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Burger, 2009; Miller, 2016), 그것은 연구주제인 복종이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인종학살이라는 반인륜적, 집단적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Milgram의 복종연구가 발표되기 얼마 전인 1961년 나치전범 Adolf Eichmann의 재판이 있었다. 나치 친위대 소속으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Eichmann은 법정에서 자신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을 참관했던 정치철학자 Hannah Arendt는 그가 괴물도 악인도 정신질환자도 아니었다고 언급하면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Arendt, 1963/2006). 이는 인종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가 단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Milgram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의 연구는 행위의 원인을 각 개인이 가진 동기 혹은 무의식적 욕망에서 찾는 개인심리적 접근, 정신역동적 관점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조장하는 상황, 사회적 관계와 집단심리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Benjamin & Simpson, 2009). 이러한 그의 연구는 연구윤리에 관한 논란을 일으키고, Mischel(1968)의 연구와 더불어 “개인대 상황” 논쟁을 가속화하고, 스펀드 감옥실험 등 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들에 영향을 미쳤다(Benjamin & Simpson, 2009; Zimbardo, 2015).

Milgram의 복종연구와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이슈별로 구분해보면, 연구윤리, 연구결과의 일반화, 재현, 이론적 설명 등에 대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시기별로 살펴보면 양적 변화가 드러난다. Milgram(1963)의 학술지 인용횟수는 2004년에 15건이었다가 2005년 30여건, 2010년 50여건, 2020년에는 110여건으로 증가했다(Kaposi, 2022). Kaposi(2022)는 이를 세 시기로 나누고, Milgram의 복종연구가 처음 발표된 1963년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1차 비판과 논쟁의 시기”, 1980년대 중반부터 2005-2010년까지를 “합의와 공고화의 시기”, 그 뒤부터 현재까지를 “2차 비판과 논쟁의 시기”라고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시기에는 Milgram의 복종연구를 재현하거나 연구윤리, 일반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Baumrind, 1964; Helm & Morelli, 1979; Kaufmann, 1967; Mantell, 1971; Orne & Holland, 1968)이 많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시기에는 이론적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Blass, 1992; Modigliani & Rochat, 1995), 그동안 축적된 비판과 검증을 거쳐 주요 이슈와 함께 Milgram 복종연구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 중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과 합의가 이루어졌다(Blass, 2004; Miller, 1986).

이러한 분위기는 2005-2010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시기는 관련 연구들이 폭증한 2005-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이 같이 관련 연구들이 폭증한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Haslam & Reicher, 2017; Kaposi, 2022; Reicher, Haslam, & Miller, 2014), 첫째, Milgram 복종연구의 비윤리적 요소를 수정, 보완하여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제기되었고(Burger, 2009; Slater et al., 2006),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은 1960년대 Milgram 복종연구에서 나타난 비윤리적 명령에 대한 복종이 2010년대에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Milgram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예일 대학교에 보관 중인 스탠리 밀그램 자료(SMP: Stanley Milgram Papers)를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Milgram(1963) 복종연구의 기본절차를 포함한 23개의 실험에 대한 양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험진행상황을 녹음한 60시간분량의 오디오 테이프를 포함하고 있으며(Kaplan, 1996), 이로 인해 복종기제에 대한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법론적, 윤리적 측면을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Haslam et al., 2015; Perry, 2013). 또한 2007년 미국 ABC 방송사의 “악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Milgram 복종연구에 관한 내용이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포로학대사건과 함께 소개되었고(Borge, 2007, 1, 3), 2010년 프랑스 다큐멘터리 “죽음의 게임 (Christophe et al., 2010)”, 2015년 호주 다큐멘터리 “쇼크 룬: 밀그램의 실험(Millard, 2015)” 등 미디어상의 노출도 관련연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Haslam & Reicher, 2017).

Milgram 복종연구(1963, 1965, 1974/2009)는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힘입어 6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각 연구는 서로 다른 관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Milgram의 전기(Blass, 2004)를 쓴 심리학자 Thomas Blass(1999)는 35년간의 관련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비윤리적 복종행위를 야기한 권위의 본질, 복종률의 성별차이 및 시

간에 따른 변화 등에 초점을 두었고, Benjamin과 Simpson(2009)는 복종연구가 성격심리학과 사회심리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개관했다. Reicher 등(2014)은 주로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Milgram 복종연구의 중요성과 관련 논쟁과 이슈들을 살펴보고, Haslam과 Reicher(2017)는 저자들이 복종의 심리적 기제라고 주장하는 “참여적 팔로워십(engaged followership)”을 중심으로 관련연구와 증거들을 개관했다.

국외 심리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관심과 연구에 비해 국내 심리학계에서 Milgram 복종연구에 대한 개관 연구를 포함한 이론적 연구나 경험적 연구 모두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용한 연구들도 주로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하거나 권위주의성격과 같이 복종과 관련있는 개인차 요인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예: Kim & Park, 2018; Lee & Park, 2009; Yang, 2009; Yoon & Han, 2008).

본 연구는 Milgram 복종연구의 주요 이슈들에 관한 논의가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는지 분석하고 그것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존 개관 연구들이 주로 집단학살과 같은 특정주제나 사회정체성 등 이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논의한 반면, 본 연구는 경험적 측면에서 현대사회가 직면한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했다는 데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논문의 구성은 먼저 Milgram 복종연구의 기본적인 실험절차와 결과, 이에 대한 학계의 초기 반응을 분석하고, 둘째, 연구윤리, 연구결과의 일반화, 이론적 설명 등 주요 이슈의 내용을 살펴보고, 셋째, 201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재현방법과 스탠리 밀그램 자료(SMP)를 이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주요 이

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Milgram 복종연구와 초기 반응

Milgram 복종연구는 1963년 처음 발표된 실험조건을 비롯하여 총 23개의 서로 다른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Haslam, Loughnan, & Perry, 2014), 이 중 18개 실험조건에 대한 결과가 1974년 출판된 책에 보고되어 있다(Milgram, 1974/2009). 1963년 발표된 Milgram 복종연구의 실험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은 교사 역할을 맡은 실험참여자가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전기충격이라는 처벌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실험실에 들어서면 실험참여자는 다른 한 사람과 짝을 이루어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교사가 되고 누가 학생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교사는 주어진 문제를 불러주고 학생이 잘못된 응답을 할 때마다 전기충격을 주기로 되어 있다. 15-450V까지 표시되어있는 전기충격기의 스위치를 하나씩 눌러 점점 더 높은 전기충격을 가하게 된다. 전기충격기의 숫자 스위치 밑에는 ‘약한 충격’부터 ‘극심한 충격’, ‘위험: 심각한 충격’까지 표시가 붙어있다.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교사 역할을 맡은 실험참여자는 다른 방에 있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문제는 낸다. 답을 제대로 못하면 전기충격을 주게 되는데, 전기충격은 300V 이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300V에 이르면 전기충격을 받은 사람이 벽을 팡팡 두드리는 소리가 실험참여자에게 들린다. 만약 실험참여자가 전기충격 주기를 주저하려 하면, 그때마다 실험자는 굳은

목소리로 계속하기를 종용한다. 또한 실험참여자가 전기충격의 영향에 대해 물을 경우, 실험자는 전기충격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험은 속임수를 포함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제비뽑기는 반드시 실험참여자가 교사가 되게 조작되어 있었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실험동조자이고 전기충격도 받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교사 역할을 맡은 실험참여자가 얼마까지 전기충격을 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실험 결과, 총 40명 중 26명, 즉 65%의 실험참여자가 최고수준인 450V의 전기충격을 주었다(Milgram, 1963, p. 376). 이와 비슷한 실험조건에서 음성조건이 포함된 경우, 즉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자신에게 경미한 심장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또 전기충격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내고 150V부터는 자신의 심장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실험실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 역시 65%의 실험참여자가 최고수준인 450V의 전기충격을 주었다(Milgram, 1974/2009, 표 3).

이런 결과는 실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대학생, 정신과 의사, 중산층 성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Milgram, 1963, p. 375; Milgram, 1974/2009, 표 1). 실제 결과를 밝히지 않은 채 실험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물었을 때, 450V까지 전기충격을 주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복종률은 0%였다. 이와 함께, 질문을 바꾸어 만약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었을 때의 예상하는 복종률 역시 0.125%로 매우 낮았다.

Milgram 복종연구(1963)는 처음에 학술지 심

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성격심리학 저널 편집 위원회는 이 연구가 과학적 실험이라기보다 “실연(demonstration)”에 가깝고, “복종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상황의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Parker, 2000). 이상 및 사회심리학 저널도 비슷한 심사평을 하며 처음에는 게재불가를 판정했다가 몇 달 뒤에 게재를 허가했다(De Vos, 2009).

심리학계에서의 초기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Milgram 복종연구(1963)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 특히 윤리적 측면과 속임수를 사용한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연구(Baumrind, 1964; Kaufmann, 1967)들이 등장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Milgram 복종연구(1963)에서 보여준 결과를 재현하려는 연구들(Mantell, 1971; Rosenhan, 1969)이 출판된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 1973년 미국 심리학회(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한 윤리규정을 수정, 공표했고(Blass, 2009),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Milgram 복종연구에 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했던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더 이상의 실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Parker, 2000). Milgram 복종연구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그가 1984년 51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의 연구의 학문적 영향력과 함께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Smeulders, 2020).

주요 이슈

Milgram 복종연구를 둘러싼 논의는 크게 세

가지, 1) 연구윤리와 방법론적 측면, 2) 연구결과의 일반화, 3) 이론적 설명으로 나눌 수 있다(Haslam & Reicher, 2017; Kaposi, 2022). 첫 번째는 연구윤리와 연구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같은 결합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체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전제하에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가설을 제기하는 연구와 논의를 포함한다.

연구윤리와 방법론적 측면

Milgram 복종연구가 1963년 처음 출판된 후, 가장 먼저 나타난 학계의 반응 중 하나는 연구윤리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를 둘러싸고 Baumrind(1964)와 Milgram(1964)의 논쟁이 있었다. 관련 쟁점은 연구자는 자신의 실험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하고 이를 미리 막거나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했는가, 연구자는 실험 전 실험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잠재적 위험)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험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가, 실험 후 사후보고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가 등이었다.

Baumrind(1964)는 Milgram 복종연구(1963)에 참여한 실험참여자들이 경험한 심리적 고통과 손상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그녀의 비판은 주로 Milgram 스스로 논문에서 밝힌 내용을 기초로 했다. 그녀는 신경질적 웃음 등 이상한 반응이 다수의 실험참여자들에게서 관찰되었고, 발작이 심해서 실험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한 실험참여자의 사례를 들면서, 이같은 수준의 심리적 문제가 사후보고에서 모두 해소되었다는 Milgram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ilgram(1964)은 반박논문에서 자

신도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실험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실험의 잠재적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참여자들이 경험했는지 모르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실험이 끝난 후 진행된 사후보고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했다(Milgram, 1964, p. 849). 또한 그는 실험 후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실험참여자가 실험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오직 1.3%만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실험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끝난 뒤 1년이 지나 실시한 추적연구에서 정신건강전문가가 실험참여자 중 누구도 실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증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음을 강조했다(Milgram, 1964, p. 850).

이러한 답변에 대해 Patten(1977)은 Milgram이 실험참여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음을 논박했다. Patten은 1963년 이후 출판된 Milgram(1965, 1974/2009) 연구들을 근거로 Milgram이 수차례 사전실험을 행했으며 이를 통해 실험참여자가 겪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Milgram 스스로 그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자신의 실험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 즉 외부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Milgram이 그러한 심리적 갈등이 실제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실험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실험조건을 고안했다고 주장했다(p. 355). 또한 Patten(1977)은 실험자가 실험참여자가 주는 전기충격으로 인한 (고통은 있을지언정) 심각한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그렇다면 실험결과에 따라 Milgram이 내린 결론, 즉 실험참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357).

연구윤리뿐만 아니라 속임수의 사용 등 방법론상의 문제점도 제기되었고, 이는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Orne과 Holland(1968)는 Milgram이 사용한 속임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험이 최소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실험자가 가만히 앉아서 실험참여자에게 명령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전기충격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기충격을 실제로 받고 응급상황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은 실험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요구 특성(demand characteristics)”, 즉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자의 의도나 지시와 상관없이 실험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는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실험의 종속변인인 전기충격을 주는 행위가 Milgram이 독립변인이라고 가정하는 실험자의 명령, 지시에 따른 복종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실험실 상황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는 요구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Milgram(1972)은 속임수가 대체로 작동했다고 답했다. 실험이 끝난 뒤 행해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이 준 전기충격이 진짜라고 믿었다고 답했으며, 믿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도 복종률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실험실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험참여자들은 자신

이 전기충격을 주어야한다는 사실에 심리적 갈등을 느꼈으며, 이는 복종하거나 저항한 모든 실험참여자에게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Milgram, 1974/2009, p. 243).

연구윤리와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들이 Milgram 연구 자체를 금지하거나 연구의 핵심논리를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Milgram 연구가 가지는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전제 하에 과연 이 연구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연구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쟁을 이어갔다.

연구결과의 일반화

Milgram 복종연구(1963, 1965, 1974/2009)에 대한 비판, 논쟁과 더불어 그 연구결과를 재현하려는 연구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이 증명하고자 했던 쟁점은 Milgram 복종실험 결과가 서로 다른 나라, 문화에서도 발견되는지, 남녀 간 차이는 없는지, 시간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같은 재현 연구들은 대부분 1963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행해졌는데, 1973년 APA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1974년 미국연방정부가 국가연구법을 제정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도화되면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 진행되었다(Blass, 1992, 2009).

이러한 재현연구들을 개관한 Blass(1992, 2009)에 따르면, Milgram 복종연구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른 실험들이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요르단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었으며, 비슷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복종률에서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Blass, 1999; Milgram, 1974/2009). 또한 시기에 따른 복종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복종률이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lass, 1999, 2004). 1963년부터 1985년까지 Milgram 복종연구의 기본적인 절차를 따른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출판년도와 복종률간의 상관계수는 .00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lass, 1999).

생태학적 타당도

Milgram 복종연구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복종실험에서 드러난 현상이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얼마나 깊은 관련을 갖는지, 즉 생태학적 타당도에 관한 것이었다. 관련 논쟁은 찬반양론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Milgram 연구결과가 개인적 요인을 압도하는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 평범한 사람들이 유대인 학살, 미라이 학살 등 집단학살과 같은 극악무도한 집단행위에 개입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Bauman, 1989; Berger, 1983; Darley, 1992; Kelman & Lawrence, 1972; Miller, 1986; Miller et al., 1995). Milgram 자신은 “전체 인간의 행동은 분절화되어 있어서 누구도 사악한 행동의 수행을 결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를 직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현대사회 조직화된 악의 실체라고 주장했다(Milgram, 1974/2009, p. 37). Kelman과 Lawrence(1972)는 Milgram 복종연구와 베트남전쟁에서 발생했던 미라이 학살사건에 공통적인 심리기제가 존재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의 대의에 내키지 않으면서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 학살행위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상대방에게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실험자의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행했던 실험참여자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p. 210).

다른 한편으로,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Milgram 복종연구와 집단학살과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문제를 제기했다(Baumrind, 1964; Helm & Morelli 1979).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나치 독일 군인들이 Milgram의 실험참여자와는 다르게 도덕적,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이들 대부분이 히틀러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억지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혐오하고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반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 혹은 기꺼이 학살행위에 가담했으며, 따라서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Baumrind, 1964).

Russell과 Gregory(2015)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Milgram 복종연구의 일반화가능성을 지지했으나 1990년대 중반 벌어진 Goldhagen 논쟁 이후부터는 비판적인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101예비경찰대대 대원들의 전후 기록을 근거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학살을 집행하게 되는지를 연구한 Browning(1998)의 저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대비하여, Goldhagen은 그의 저서 “히틀러의 자발적 사형 집행자들(1996)”에서 수많은 잔혹행위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의 연구들은 2010년

대 이후 Milgram 복종실험을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들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론적 설명

1963년 처음 발표된 Milgram의 연구는 실험 참여자들이 실험자의 명령, 지시에 순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현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왜 복종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Blass, 1992; Mandel, 1998). 그 뒤 1974년에 출판한 책에서 Milgram은 자율적 심리상태와 대비되는 “대리자적 상태(agentive state)”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이 어떤 위계 구조 속으로 편입되고 통합되면서 그 구조 안에서 요구되는 대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 복종의 심리적 기제라고 설명했다(Milgram, 1974/2009, p. 195). 이러한 설명은 Hannah Arendt(1963/2006)의 “악의 평범성” 개념, 홀로코스트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관료들 없이 불가능했다는 Raul Hilberg(1980)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졌다(Blass, 1993).

Milgram의 대리자적 상태 이론은 곧 많은 비판과 논쟁을 야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설명이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된 나치 고위급 관료들과 아이히만이 자신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 죄가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Mandel(1998)은 Milgram의 개념이 나치전범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잔인하게 고문당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은 분

명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상이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나치 독일 군인들은 Milgram의 실험참여자들과는 다르게 히틀러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억지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Baumrind, 1964; Fenigstein, 1998). 많은 나치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을 혐오하고 인간이하로 취급하는 반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혹은 기꺼이 학살행위에 가담했으며,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¹⁾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 혹은 나치독일 관련자 등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이 도덕적 논란이 과학적 논쟁을 왜곡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lgram이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한 뒤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그의 이론적 설명이 동어반복(tautology) 혹은 사후 설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한다(De Vos, 2009).

2010년대 이후 주요 이슈의 변화

2005-2010년부터 Milgram 복종연구에 관한 논의는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Milgram 복종실험을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과 예일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던 SMP자료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과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이슈에 대해 새로운 질문과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예: Gibson, 2013; Nicholson, 2011; Perry, 2013; Russell, 2014).

새로운 방법의 재현연구와 질적 연구

2005-2010년 시기에 Milgram 복종실험을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예: Beauvois, Courbet, & Oberle, 2012; Burger, 2009; Slater et al., 2006). Burger (2009)는 윤리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절차를 실험에 포함시켰는데, 먼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을 선별하여 제외시키고, 다음으로 실험참여 동의를 실험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최대 전기충격 수준을 450V에서 150V로 낮추어 실험참여자가 경험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켰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실험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150V를 누른 실험참여자들의 대부분(79%)이 450V까지 계속해서 누른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실험자는 150V를 누른 실험참여자의 반응을 살펴서 실험참여자가 계속하려는지, 멈추려는지를 확인한 후 실험을 끝내게 되며, 계속하려는 의향을 보인 실험참여자는 가장 높은 단계인 450V까지 누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여 실시한 2006년의 실험결과, 복종률은 70%였으며,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여 또 다른 연구자(Doliński et al., 2017)가 실시한 2015년의 실험

1) Milgram 복종실험결과가 나치전범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기된 일부 주장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잣대로 과학적 실험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는 과학적 논쟁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음을 밝힌다.

험결과, 복종률은 90%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Milgram(1974/2009)의 실험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Milgram 연구에서 드러난 복종경향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상현실, 몰입형 환경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Milgram 복종실험을 재현한 연구들이 나타났다(예: Cheetham et al., 2009; Dambrun & Vatine, 2010; Haslam, Reicher, & Millard, 2015; Slater et al., 2006). Slater 등(2006)은 가상환경을 이용해 Milgram 복종실험을 재현했는데, 실험참여자들은 가상현실 속의 인물에게 전기충격을 주도록 지시받았으며, 사람들이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와 같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실험결과, 실험참여자들이 가상현실 속 인물이 전기충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실제에서와 비슷한 생리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복종률은 74%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가상현실이 실제가 아니라는 명시적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참여자들이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는 감각의 총합이 그것이 마치 현실처럼 느끼도록 암묵적 지식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했다.

다른 한편으로, SMP자료를 이용한 연구들도 늘어났다(Brannigan, Nicholson, & Cherry, 2015; Nicholson, 2011; Perry, 2013). 오디오 테이프 등 질적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Modigliani & Rochat, 1995). Modigliani와 Rochat(1995)는 예일 대학교가 아닌 브리지포트의 허름한 빌딩사무실에서 실시한 실험조건에 참여한 총 40명 중 자료가 확보된 36명의 오디오 테이프 자료를 활용하여 실험자와 실험참여자간의 상호작용

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실험참여자가 실험자에게 더 빨리 실험상황에 대한 의문과 설명요청, 내키지 않음, 불만족 등 저항 의사의 표현이 빠를수록 더 빨리 전기충격을 중단한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자는 실험참여자가 실험중단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저항 의사표시도 즉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빠를수록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면의 모순과 갈등을 완화하고 실험중단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p. 120).

2010년대 이후 질적 데이터에 관심이 커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많아졌다(예: Gibson, 2019; Hollander, 2015; Hollander & Turowetz, 2017; Hollander & Maynard, 2016). Perry(2013)는 실험참여자 한 명에 50분가량이 소요되는 140명의 오디오 테이프 자료를 분석했으며, 실험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험 후 실시된 후속설문조사와 이에 포함된 개방형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연구(Nicholson, 2011)도 있었다. 질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연구윤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비판을 제기하거나(Brannigan et al., 2015; Nicholson, 2011; Perry, 2013), 실험진행 상황에서 일어난 집단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복종의 심리적 기제와 과정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Gibson, 2022; Hollander & Turowetz, 2017).

연구윤리의 재조명

SMP자료를 기반으로 연구윤리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중 하나는 사후보고에 대한 것이었다. 몇몇 연구자들(Nicholson, 2011; Perry, 2013)에 따르면 Milgram 복종실험

에 참여한 모든 실험참여자가 실험이 끝난 직후 사후보고를 받았다는 Milgram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후보고를 받은 경우에도 전기충격이 가짜였다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SMP자료와 Milgram의 실험조교와의 인터뷰를 통해 Perry(2013)는 Milgram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숨겼으며, 이는 실험에 참여할지 모르는 잠재적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실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서였다고 추정했다.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의 진짜 목적에 대해 알게 된 것은 Milgram이 계획한 모든 실험이 끝난 뒤 추후 설문지와 함께 받은 문서로 된 보고서로부터였다.

이러한 불충분한 혹은 부적절한 사후보고는 실험참여자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SMP자료를 근거로 Nicholson(2011)은 몇몇 심각한 사례들을 찾아냈는데, 그 중 한 실험참여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전기충격으로 죽였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으로 인해 무척 괴로웠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실험참여자는 실험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미한 심장마비를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실험참여자들이 경험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지 않으며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Milgram의 주장과는 다르게 많은 실험참여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음을 밝혔다(Brannigan et al., 2015; Nicholson, 2011; Perry, 2013).

이와 같은 연구윤리적인 측면 외에도 그동안 미출판되었던 자료 등을 분석한 여러 연구자들(Gibson, 2013; Perry, 2013; Russell & Gregory, 2011)은 Milgram 복종실험이 잘 계획

되고 통제된 과학적 실험이 아니라 높은 복종률이라는 연구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때 그때 다르게 대처하며 정해진 절차를 바꾸는 등,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오류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실험참여자가 실험을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계속 진행하십시오.” 등 4번의 정해진 멘트를 한 뒤, 그래도 중단을 원할 경우 실험을 중단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응답하거나 4번이 아니라 25번까지 전기충격을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SMP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Perry(2013)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실험내용과 실제 실험진행상황을 녹음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연구자가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절차 곳곳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대안적 이론과 접근

SMP자료와 새로운 재현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자들이 Milgram 복종연구를 재현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Haslam, Reicher와 동료들(Haslam, Reicher, & Birney, 2014; Haslam, Reicher, & Millard, 2015; Haslam et al., 2015)은 Milgram 복종실험의 실험참여자들이 맹목적으로 혹은 무분별하게 실험자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실험의 목적과 실험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적 과정, 즉 “참여적 팔로워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들 연구자는 사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 Turner, 1975)에 기반하여 복종기제의 주된 동력이 실험자 혹은 실험자로 대표되는 과학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험참여자에게 있

으며, 실험참여자 내면에서 상충하는 두 가지 힘, 즉 실험자로 대표되는 과학의 권위와 고통 받는 타인으로 대표되는 도덕 공동체 중 어느 쪽에 자신을 동일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실험자가 실험참여자를 부추기는 데 사용한 네 가지 멘트 중 가장 명령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멘트(“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계속해야 합니다.”)가 실제로 실험참여자로서 하여금 전기충격스위치를 계속 누르게 하는 데 효과가 없었던 반면, 실험의 대의를 일깨우는 멘트(“실험이 진행되려면 당신이 계속해야 합니다.”)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Caspar et al., 2018; Haslam et al., 2014). 또 다른 근거는 Milgram 복종실험이 끝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실시된 설문조사와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실험참여자들 대부분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매우 흥미롭고 가치있는 실험이었다.” 등 실험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실험의 과학적 목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일시가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증거가 상황적 압력, 권위자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수동적인 대리인(agent)이 아닌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려는 참여적 추종자(engaged follower)에 더 부합하다고 주장했다(Haslam et al., 2015).

참여적 팔로워십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도 등장했다(Hollander & Turowetz, 2017, 2018). Hollander와 Turowetz(2017)는 실험직후 실시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적 팔로워십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실험참여자가

자신의 행위를 과학의 대의와 동일시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반면, 복종했던 실험참여자 중 72%가 자신이 준 전기충격으로 상대방이 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다양했는데, 실험참여자는 1) 누구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실험자의 말을 신뢰하거나 2) 전기충격을 받은 사람이 과잉반응했다고 생각하거나 3) 실험자체에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하여 이들 연구자들은 참여적 팔로워십 이론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기제와 과정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Hollander & Turowetz, 2017, 2018).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여적 팔로워십은 현재 Milgram의 대리자적 상태 이론을 대체하는 가장 우세한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Gibson, 2019).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는 대리자적 상태 이론과 달리 두 가지 프레임간의 대립구조, 즉 실험과 실험자가 대표하는 과학적 대의에 대한 동일시와 무고하게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동일시로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확장성있고 설득력있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론적 모델 외에도 주요 개념(권위, 복종, 책임 등)에 대한 연구도 증가했다(예: Burger, 2014; Caspar et al., 2018; Gibson, 2013). Gibson(2013)은 권위 개념을 사회구조적 맥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충격을 주는 복종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실험자의 네 가지 멘트 중 직접적인 명령이 비효과적이었다는 점, 실험자의 직접적인 개입과 명령은 실험참여자가 아무런 저항없이 복종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을 근거로 권위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Milgram 복종실험의 실험참여자들이 전기충격을 가한 행위를 실험자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보다 과학, 과학자, 예일 대학교 등 실험상황을 둘러싼 더 복잡한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Russell과 Gregory (2015)는 전기충격기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여, 전기충격기가 관료주의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자는 전기충격기가 실험참여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행위와 분리시키면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 즉 자신이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긴장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안적인 접근과 다양한 분석기법이 제시되었다. 몇몇 연구자(Gibson, 2014, 2019; Hollander & Maynard, 2016)는 Milgram 복종실험 관련 논의의 대부분이 복종을, 즉 복종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단일차원으로 편향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간과됐던 저항, 불복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Gibson(2019)은 복종 실험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동시에 권위에 저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험자와 실험참여자의 상호작용은 강압이라기보다 설득과 논쟁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하에 그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수사심리학(rhetorical psychology: Billig, 1996) 기법을 제안했다.

Hollander와 Maynard(2016)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Maynard, 2013)을 통해 복종과 저항행위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효과적으로 저항했던 실험참여

자들은 두 가지 논지를 사용했다. 첫째, 실험 참여자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논지로 전기충격을 받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표현하며 이를 이용해 저항행위를 구체화했으며, 둘째 전기충격을 받는 사람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논지를 이용하여 실험자로 하여금 전기충격을 받는 사람이 실험을 계속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실험중단을 정당화했다.

Caspar 등(2016)은 의도결합효과(intentional binding effect: Haggard et al., 2002)를 이용한 암묵적 측정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줘야 하는 강압적 조건에서 실험참여자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그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참여자는 자신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감각, 즉 자기 행위 감각(sense of agency) 혹은 자발적인 행위의식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실험직후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설문조사 분석결과, 강압적 조건의 실험참여자들이 자신의 선택권이 있었던 조건의 실험참여자에 비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더 낮은 책임감을 보고했다. 이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Milgram의 대리자적 상태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소결

2010년대 이후 SMP자료를 활용한 연구들(Nicholson, 2011; Perry, 2013)로 인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서 연구윤리에 관한 논란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커졌다. 실험참여자 중 일부가 그로 인해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었고, 실험자가 실험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가 발

견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는 연구결과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새로운 재현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1960년대 실시한 Milgram 실험에서의 복종을 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연구윤리 논란과는 별도로 Milgram 실험결과 자체는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Milgram 실험에 관한 최근 연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가? 양적, 질적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이론적 설명과 분석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참여적 팔로워십 이론이 제안되었으며, 권위와 같은 주요 개념과 요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확장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과 주장은 주로 SMP 자료 등 Milgram 실험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새로운 재현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시사점

현재까지 지속되는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Milgram 복종연구에 대한 논의는 관련연구들에 의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들에 의한 이론적, 경험적 성과는 Milgram 복종연구에서 드러난 현상이 단순한 명령에 따른 복종이라기보다 사회구조적 맥락과 권위자와의 관계, 공감, 책임감의 분산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기제가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나타난 것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복종현상이 강력한 명령체계 혹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만 아니라 위계가 존재하는 사회구조,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같은 집단적 위기

상황에서 복종 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집단적 위기는 집단적 행동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정부나 전문가의 권위, 리더십에 의존하게 된다.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다(Levine et al., 2023; Nitschke et al., 2021; Wu et al., 2022).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권위에 의존하여 행동을 결정하며, 여기서 권위는 자신이 동일시하는 내집단에서 인정하는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한 권위 혹은 리더십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때의 문제점을 Milgram은 지적했으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위, 리더십에 따르는 복종행위는 오히려 바람직하다(Ent & Baumeister, 2014). 특히 집단차원에서의 복종은 집단 내 조화와 통합에 기여하며 어떤 집단행동이 요구될 때 불필요한 희생과 혼란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Reicher와 Stott(2020)는 복종에 관한 참여적 팔로워십 모델을 이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진 질서 혹은 무질서의 사례를 설명했다. Milgram 복종연구의 권위의 개념을 확장하여 리더십의 특성, 절차적 정의, 역사적 맥락,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위기상황에서 공유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요인들이 결핍되었을 때 정부조치에 대한 거부, 반대시위 등 무질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을 잘못된 리더십의 예로 들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주에서 사회적 거리두

기와 봉쇄조치를 취한 것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을 때, Trump 대통령이 시위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행위가 혼란과 무질서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통합적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주지사의 리더십이 충돌하면서 사회혼란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ilgram 복종실험상황에 비해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다수, 다층의 권위와 리더십이 공존하며, 정당한 리더십과 그렇지 못한 리더십이 공존한다. 또한 Milgram 복종연구에서 비합리적 권위와 도덕 공동체가 단일차원에서 존재했지만, 현실에서는 각각의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다. Stevenson 등(2021)은 영국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상황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동일시가 코로나 정부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자신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 강하게 동일시할수록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 봉쇄지침을 더 철저하게 지켰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들이 위기상황에서 어떠한 리더십, 어떠한 공동체도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즉 어떠한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어떠한 집단규범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각자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될까? 그런 진공적인 상태를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짐작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Wu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된 불확실성을 상기시킨 실험참여자들의 경우 장기적이면서 더 큰 이익과 즉각적이면서 더 작은 이익 중에서 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Milgram 복종실험

에서와 달리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내 집단 또는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는지, 자신의 속한 집단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은 미래 공공의 이익보다는 현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리더십과 함께 주목해야할 요인은 과학자, 전문가의 역할이다. 실험자로 대표되는 과학의 권위에 대한 복종경향은 1963년 발표된 Milgram 실험에서도 알 수 있지만, 1974년 출간된 책에 포함된 18개 실험조건 중 하나에서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Milgram, 1974/2009, p. 146). 해당 조건에서 실험자는 하얀색 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이었고 복종률은 20%로 낮아졌다. 최근의 연구(Birney et al., 2023)는 과학의 권위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신경과학(더 전형적인 과학)과 사회과학(덜 전형적인 과학)으로 구분하여 실험했는데, 결과는 더 전형적인 과학 조건에서 복종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대중이 정치지도자, 과학자 등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의 권고를 복종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권고의 시기와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그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정의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드러난 리더십

과 권위의 역학은 기후위기에 적용될 수 있다. 기후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후위가 다른 위기(예: 전쟁, 테러, 자연재해)에 비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인지가 어렵고, 다른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Burrows et al., 2023; Constantino & Weber, 2021).

Worthy(2014)는 기후위기와 Milgram 복종연구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Milgram의 실험조건 몇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사전실험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전기충격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조건이었으며, 실험결과 거의 100%의 실험참여자가 최대수준의 전기충격을 주었다. 또 하나는 전기충격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 조건이었는데, 이 경우 15%의 실험참여자가 최대수준의 전기충격을 주겠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고통받는 타인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즉 자신의 행위결과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지되지 않을 경우 복종률이 높아진다고 추론하면서, 기후위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세대임을 지적했다. Worthy는 이를 ‘현상적 분리(phenomenal dissociation)’라고 일컬으며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상행동의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교감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과 사회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ussell과 Bolton(2019)은 Milgram 실험의 실험자와 화석연료 업계, 실험의 과학적 대의와 화석연료가 기여하는 경제성장의 이념, 전기

충격받는 희생자와 기후위의 희생자 간의 유사점을 지적했다. 또한 15-450V까지 표시되어있는 전기충격기의 스위치로 상징되는 관료주의와 과학기술이 책임의 모호성을 증대시키고, 각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역할과 기능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존재할까? 다수의 연구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상위차원의 포괄적 집단정체성 또는 친환경 태도와 행동과 밀접한 집단정체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예: Batalha & Reynolds, 2012; Fielding & Hornsey, 2016). Batalha와 Reynolds(2012)는 지구 시민과 같은 상위차원의 집단정체성이 형성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나 민족정체성과 같은 하위차원의 집단정체성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위 집단정체성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상위 집단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가져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절차적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후위에 대응하는 상위차원의 집단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후정의, 기후불평등, 취약집단, 인권 등의 이슈가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Fielding과 Hornsey(2016)는 이러한 상위차원의 집단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형태의 집단행동인 집회나 시위를 통해 자신과 동일한 신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연대감과 정체성을 키웠다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온라인

에서 조직되고 물리적 접촉 없이 활동하면서 때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집단정체성이 전통적 형태의 집단정체성과 어떻게 다른지, 기후위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한계와 방향

Milgram의 복종연구는 Kurt Lewin(1947)의 전통 하에서 Asch의 동조실험, Zimbardo의 스텐포드 감옥실험, Janis의 집단사고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특히 변화를 중시했는데, 변화의 초점은 개인보다 환경이었다. Asch(1951)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 동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Janis(1972)는 집단토론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포함시키면 편향과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lgram(1974/2009)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진 65% 복종률의 실험 외에도 기본 실험조건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면서 복종률 0-100%로 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최근 연구들은 복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켰지만, 주로 개인심리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여전히 복종을 유발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Milgram 복종실험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Milgram으로 하여금 복종실험을 잉태시킨 연구자로서의 자세와 정신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홀로코스트의 발생원인으로서

복종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주목하고, 자신이 생각한 복종의 핵심요인들로 짜여진 실험상황을 창의적으로 설계했다. 이는 Asch의 실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영감은 현실에서 얻은 것이었다. 앞으로 Milgram의 다양한 실험조건과 상황적 요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가 고안한 실험조건 외에 새로운 조건을 포함한 연구, 더 나아가 자신만의 이론에 기초한 변인들로 구성된 실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연구자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Milgram 복종연구에 관해 상당한 양의 연구를 개관하였으나,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복종과 관련이 있는 다른 학문분야(예: 조직심리학, 조직행동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연구를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디지털 권위주의, 기술관료주의 등에 관한 연구들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sch, S. (1951). Effects of group pressure 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H. S. Guetzkow (Ed.), *Groups, leadership and men: Research in human relations* (pp. 177-190). Carnegie Press.
- Arendt, H. (1963/2006). *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 Viking press.
- Batalha, L., & Reynolds, K. J. (2012). ASPIRING to mitigate climate change: Superordinate

- identity in global climate negotiations. *Political Psychology*, 33(5), 743-760.
<https://doi.org/10.1111/j.1467-9221.2012.00896.x>
- Benjamin Jr, L. T., & Simpson, J. A. (2009). The power of the situation: The impact of Milgram's obedience studies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64(1), 12-19. <https://doi.org/10.1037/a0014077>
- Bauman, Z.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Baumrind, D. (1964). Some thoughts on ethics of research: After reading Milgram's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American Psychologist*, 19(6), 421-423.
<https://doi.org/10.1037/h0040128>
- Baumrind, D. (1985). Research using intentional deception: Ethical issues revisited. *American Psychologist*, 40(2), 165-174.
<https://doi.org/10.1037/0003-066X.40.2.165>
- Berger, L. (1983).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Holocaust: Is mass murder part of human behavior? In R. L. Brahm (Ed.), *Perspectives on the Holocaust*. Boston, MA: Kluwer-Nijhoff.
- Billig, M. (1996). *Arguing and thinking: A rhetorical approach to social psychology*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ney, M. E., Reicher, S. D., Haslam, S. A., Steffens, N. K., & Neville, F. G. (2023). Engaged followership and toxic science: Exploring the effect of prototypicality on willingness to follow harmful experimental instruc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2(2), 866-882.
<https://doi.org/10.1111/bjso.12603>
- Blass, T. (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Stanley Milgram.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277-329). Academic Press.
- Blass, T. (1993).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perpetrators of the holocaust: The role of situational pressures, personal dispositions, and their interactions. *Holocaust and Genocide Studies*, 7(1), 30-50. <https://doi.org/10.1093/hgs/7.1.30>
- Blass, T. (1999). The Milgram paradigm after 35 years: Some things we now know about obedience to author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955-978.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9.tb00134.x>
- Blass, T. (2004). *The man who shocked the world: The life and legacy of Stanley Milgram*. New York: Basic Books.
- Blass, T. (2009). From New Haven to Santa Clara: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Milgram obedience experiments. *American Psychologists*, 64(1), 37-45. <https://doi.org/10.1037/a0014434>
- Borge C. (2007, 1, 3). *Basic instincts: The science of evil*. ABC News.
- Brannigan, A., Nicholson, I., & Cherry, F. (2015).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Unplugging the Milgram machine. *Theory & Psychology*, 25(5), 551-563.
<https://doi.org/10.1177/09593543156044>
- Browning, C. R. (1998). *Ordinary Men: Reserve Police Battalion 101 and the Final Solution in Poland*. New York: Harper Perennial.
- Burger, J. M. (2009). Replicating Milgram: Would people still obey today? *American Psychologist*, 64(1), 1-11. <https://doi.org/10.1037/a0010932>
- Burger, J. M. (2014). Situational features in

- Milgram's experiment that kept his participants shocking. *Journal of Social Issues*, 70(3), 489-500. <https://doi.org/10.1111/josi.12073>
- Burrows, B., Abellera, C., & Markowitz, E. M. (2023). COVID 19 and climate change: The social psychological roots of conflict and conflict interventions during global crises.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14(5), e837. <https://doi.org/10.1002/wcc.837>
- Caspar, E. A., Christensen, J. F., Cleeremans, A., & Haggard, P. (2016). Coercion changes the sense of agency in the human brain. *Current Biology*, 26(5), 585-92. <https://doi.org/10.1016/j.cub.2015.12.067>
- Caspar, E. A., Cleeremans, A., & Haggard, P. (2018). Only giving orders?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sense of agency when giving or receiving commands. *PLoS one* 13(9): e020402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4027>
- Cheetham, M., Pedroni, A. F., Antley, A., Slater, M., & Jancke, L. (2009). Virtual Milgram: Empathic concern or personal distress? Evidence from functional MRI and dispositional measure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3, 802. <https://doi.org/10.3389/neuro.09.029.2009>
- Christophe N, Bornot T, Amado G, & Blanc, A-M. (2010). *Le Jeu de la Mort (Game of Death)* [documentary]. Paris: France 2.
- Dambrun, M., & Vatiné, E. (2010). Reopening the study of extreme social behaviors: Obedience to authority within an immersive video environ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760-773. <https://doi.org/10.1002/ejsp.646>
- Doliński, D., Grzyb, T., Folwarczny, M., Grzybała, P., Krzyszycha, K., Martynowska, K., Trojanowski, J. (2017). Would you deliver an electric shock in 2015? Obedience in the experimental paradigm developed by Stanley Milgram in the 50 years following the original studi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8), 927-933. <https://doi.org/10.1177/1948550617693060>
- Darley, J. M. (1992). Social organization for the production of evil. *Psychological Inquiry*, 3, 199-21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302_28
- De Vos, J. (2009). Now that you know, how do you feel? The Milgram experiment and psychologization. *Annual Review of Critical Psychology*, 7, 223-246.
- Ent, M., & Baumeister, R. (2014). Obedience, self-control, and the voice of culture. *Journal of Social Issues*, 70(3), 574-586. <https://doi.org/10.1111/josi.12079>
- Fenigstein, A. (1998). Were obedience pressures a factor in the Holocaust? *Analyse & Kritik*, 20(1), 54-73. <https://doi.org/10.1515/auk-1998-0104>
- Fielding, K. S., & Hornsey, M. J. (2016). A social identity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Insights and opportunities. *Frontiers in Psychology*, 7, 121. <https://doi.org/10.3389/fpsyg.2016.00121>
- Goldhagen, D. J. (1996). *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the Holocaust*. Vintage.
- Gibson, S. (2013). Milgram's obedience experiments:

- A rhetoric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2, 290-309.
<https://doi.org/10.1111/j.2044-8309.2011.02070.x>
- Gibson, S. (2014). Discourse, defiance, and rationality: “Knowledge work” in the “obedience” experi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70(3), 424-438.
<https://doi.org/10.1111/josi.12069>
- Gibson, S. (2019). *Arguing, Obeying and Defying: A Rhetorical Perspective on Stanley Milgram’s Obedience Experimen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son, S. (2022). ‘We have a choice’: Identity construction and the rhetorical enactment of resistance in the ‘two peers rebel’ condition of Stanley Milgram’s obedience experi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2(3), 391-404. <https://doi.org/10.1002/ejsp.2734>
- Haggard, P., Clark, S., & Kalogeras, J. (2002). Voluntary action and conscious awareness. *Nature Neuroscience*, 5, 382-385.
<https://doi.org/10.1038/nn827>
- Helm, C., & Morelli, M. (1979). Stanley Milgram and the obedience experiment: Authority, legitimacy, and human action. *Political Theory*, 7, 321-345.
<https://doi.org/10.1177/009059177900700303>
- Haslam, N., Loughnan, S., & Perry, G. (2014). Meta-Milgram: An empirical synthesis of the obedience experiments. *PLoS one*, 9(4), e9392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93927>
- Haslam, S. A., & Reicher, S. D. (2017). 50 years of ‘obedience to authority’: From blind conformity to engaged followership.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3, 59-78.
<https://doi.org/10.1146/annurev-lawsocsci-110316-113710>
- Haslam, S. A., Reicher, S. D., & Birney, M. E. (2014). Nothing by mere authority: Evidence that in an experimental analogue of the Milgram paradigm participants are motivated not by orders but by appeals to sci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70(3), 473-488.
<https://doi.org/10.1111/josi.12072>
- Haslam, S. A., Reicher, S. D., Birney, M. E., Millard, K., & McDonald, R. (2015). ‘Happy to have been of service’: The Yale archive as a window into the engaged followership of participants in Milgram’s ‘obedience’ experi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 55-83. <https://doi.org/10.1111/bjso.12074>
- Haslam, S. A., Reicher, S. D., & Millard, K. (2015). Shock treatment: Using immersive digital realism to restage and re-examine Milgram’s ‘Obedience to Authority’ research. *PLoS one*, 10(3), e109015.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09015>
- Hilberg, R. (1980). The nature of the process. In J. E. Dimsdale (Ed.), *Survivors, Victims, and Perpetrators: Essays on the Nazi Holocaust* (pp. 5-54).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Hollander, M. M. (2015). The repertoire of resistance: Non-compliance with directives in Milgram’s ‘obedience’ experim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3), 425-444.
<https://doi.org/10.1111/bjso.12099>
- Hollander, M. M., & Maynard, D. W. (2016). Do unto others...? Methodological advance and self- versus other-attentive resistance in

- Milgram's "obedience" experimen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9(4), 355-375.
<https://doi.org/10.1177/0190272516648967>
- Hollander, M. M., & Turowetz, J. (2017). Normalizing trust: Participants' immediately post-hoc explanations of behaviour in Milgram's 'obedience' experim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6(4), 655-674.
<https://doi.org/10.1111/bjso.12206>
- Hollander, M. M., & Turowetz, J. (2018). Multiple compliant processes: A reply to Haslam and Reicher on the engaged followership explanation of 'obedience' in Milgram's experim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7(2), 301-309.
<https://doi.org/10.1111/bjso.12252>
- Janis, I. L. (1972). *Victims of Groupthink: A Psychological Study of Foreign-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Boston: Houghton, Mifflin.
- Kaufmann, H. (1967). The price of obedience and the price of knowledge. *American Psychologist*, 22(4), 321-322.
<https://doi.org/10.1037/h0037664>
- Kaplan, D. E. (1996). The Stanley Milgram papers: A case study on appraisal of and access to confidential data files. *The American Archivist*, 59(3), 288-297.
<https://doi.org/10.17723/aarc.59.3.k3245057x1902078>
- Kelman, H. C., & Lawrence, L. H. (1972).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Lt. Calley. *Journal of Social Issues*, 28(1), 177-212.
<https://doi.org/10.1111/j.1540-4560.1972.tb00010.x>
- Kim, T., & Park, S. W. (2018). Methodological errors in attitude attribution paradigm and their possible consequences in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and correspondence bias: Biased response and reduced confidence in attitude judgm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2(4), 41-64.
<http://dx.doi.org/10.21193/kjspp.2018.32.4.003>
- Lee, E., & Park, K. B. (2009). An effect of decision rule on the stability of mock juries' verdic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91-110.
<http://dx.doi.org/10.21193/kjspp.2009.23.1.006>
- Lewin, K. (1947).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NY: Harper & Row.
- Levine, L., Kay, A., & Shapiro, E. (2023). The anxiety of not knowing: diagnosis uncertainty about COVID-19. *Current Psychology*, 42, 30678-30685.
<https://doi.org/10.1007/s12144-022-02783-y>
- Mandel, D. R. (1998). The obedience alibi: Milgram's account of the Holocaust reconsidered. *Analyse & Kritik*, 20(1), 74-94.
<https://doi.org/10.1515/auk-1998-0105>
- Mantell, D. M. (1971). The potential for violence in Germany. *Journal of Social Issues*, 27(4), 101-112.
<https://doi.org/10.1111/j.1540-4560.1971.tb00680.x>
- Maynard, D. W. (2013). Everyone and no one to turn to: Intellectual roots and contexts for conversation analysis. In J. Sidnell & T. Stivers (Eds.), *The Handbook of Conversation Analysis* (pp. 11-31). New York: Blackwell-Wiley.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371-378. <https://doi.org/10.1037/h0040525>
- Milgram, S. (1964). Issues in the study of obedience: A reply to Baumrind. *American Psychologist*, 19(11), 848-852. <https://doi.org/10.1037/h0044954>
- Milgram, S. (1965). Some conditions of obedience and disobedience to authority. *Human Relations*, 18(1), 57-76. <https://doi.org/10.1177/001872676501800105>
- Milgram, S. (1972). Interpreting obedience: Error and evidence; A reply to Orne and Holland. In A. G. Miller (Ed.), *The Social Psychology of Psychological Research* (pp. 138-154). New York, NY: The Free Press.
- Milgram, S. (1974/2009). *Obedience to Authority: An Experimental View*. Harper & Row.
- Millard, K. (2015). *Shock Room* [documentary]. Sydney: Charlie Prod.
- Miller, A. G. (1986). *The Obedience Experiments: A Case Study of Controversy in Social Science*. New York, NY: Praeger.
- Miller, A. G. (2016). Why are the Milgram obedience experiments still so extraordinarily famous-and controversial? In A. G. Miller (Ed.),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and evil* (pp. 185-223). New York, NY: Guildford.
- Miller, A. G., Collins, B. E., & Brief, D. E. (1995). Perspectives on obedience to authority: The legacy of the Milgram experiments. *Journal of Social Issues*, 51(3), 1-19. <https://doi.org/10.1111/j.1540-4560.1995.tb01331.x>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Wiley.
- Modigliani, A., & Rochat, F. (1995). The role of interaction sequences and the timing of resistance in shaping obedience and defiance to author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1(3), 107-123. <https://doi.org/10.1111/j.1540-4560.1995.tb01337.x>
- Nicholson, I. (2011). "Torture at Yale": Experimental subjects, laboratory torment, and the "rehabilitation" of Milgram's "Obedience to Authority". *Theory & Psychology*, 21(6), 737-761. <https://doi.org/10.1177/0959354311420199>
- Nitschke, J. P., Forbes, P. A., Ali, N., et al. (2021). Resilience during uncertainty? Greater social connectedness during COVID 19 lockdown is associated with reduced distress and fatigu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6(2), 553-569. <https://doi.org/10.1111/bjhp.12485>
- Orne, M. T. & Holland, C. H. (1968). On the ecological validity of laboratory decep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6, 282-293.
- Parker, I. (2000). Obedience. *Granta*, 71(4), 99-125.
- Patten, S. C. (1977). The case that Milgram makes. *The Philosophical Review*, 86(3), 350-364. <https://doi.org/10.2307/2183787>
- Perry, G. (2013). *Behind the Shock Machine: The Untold Story of the Notorious Milgram Psychology Experiments*. New York, NY: The New Press.
- Reicher, S. D., Haslam, A., & Miller, A. (2014). What makes a person a perpetrator? The intellectual, moral, and methodological arguments for revisiting Milgram's research on

- the influence of authority. *Journal of Social Issues*, 70(3), 393-408.
<https://doi.org/10.1111/josi.12067>
- Rosenhan, D. (1969). Some origins of concern for others. In P. Mussen, J. Langer, & M. Covington (Eds.), *Trends and Issu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134-153). Holt, Rinehart & Winston.
- Russell, N. (2014). Stanley Milgram's obedience to authority "relationship condition": Som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Social Sciences*, 3, 194-214.
<https://doi.org/10.3390/socsci3020194>
- Russell, N., & Bolton, A. (2019). Climate catastrophe and Stanley Milgram's electric shock "Obedience" experiments: An uncanny analogy. *Social Sciences*, 8(6), 178.
<https://doi.org/10.3390/socsci8060178>
- Russell, N., & Gregory, R. (2011). Spinning an organizational "web of obligation"? Moral choice in Stanley Milgram's "Obedience to Authority" experiment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1(5), 495-518.
<https://doi.org/10.1177/0275074010384129>
- Russell, N., & Gregory, R. (2015). The Milgram-Holocaust linkage: Challenging the present consensus. *State Crime Journal*, 4(2), 128-153.
<https://doi.org/10.13169/statecrime.4.2.0128>
- Slater, M., Antley, A., Davison, A., Swapp, D., Guger, C., Barker, C., Pistrang, N., & Sanchez-Vives, M. V. (2006). A virtual reprise of the Stanley Milgram obedience experiments. *PLoS one*, 1(1), e3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00039>
- Smeulers, A. (2020). Milgram revisited: Can we still use Milgram's 'Obedience to Authority' experiments to explain mass atrocities after the opening of the archives? Review Essay. *Journal of Perpetrator Research*, 3(1), 216-244.
<https://doi.org/10.21039/jpr.3.1.45>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 Turner, J. C. (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 5-34.
<https://doi.org/10.1002/ejsp.2420050102>
- Yang, K. (2009). The factors influencing the Korean adolescents' attitude to minority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2), 59-79.
<http://dx.doi.org/10.21193/kjspp.2009.23.2.004>
- Yoon, S., & Han, S. Y. (2008). Differences in obedience to authority between authoritarians and non-Authoritarians: in three authority-level situation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3), 41-56.
- Worthy, K. (2014). Milgram, proximity, and environmental crisis. In Regina V. Ershova & Alexander Y. Voronov (Eds.) *Stanley Milgram's Obedience Paradigm for 2014*. Kolomna, Russia: Moscow Regional State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 Wu, X., Li, J., & Li, Y. (2022). The impact of uncertainty induced by the COVID-19 pandemic on intertemporal choice. *Journal of*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3, 104397.

<https://doi.org/10.1016/j.jesp.2022.104397>

Zimbardo, P. (2015). Foreword. In I. Chaleff (Ed.),

Intelligent Disobedience: Doing Right When What

You're Told to Do is Wrong (pp. xiii-xvi).

Oakland, CA: Berrett-Koehler.

1차원고접수 : 2024. 05. 27

2차원고접수 : 2024. 07. 09

최종게재결정 : 2024. 09. 23

A Review of Milgram's Obedience Studies: Recent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in Contemporary Society

Jaeshin Kim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tanley Milgram's obedience studies(1963, 1965, 1974) ar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nd criticized studie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Due to its academic significance and societal impact, the studies continue to be discussed even over 60 years later. This paper provided an overview of related research and discussions, particularly examining the evolution of key issues' discussions since the 2010s. Specifically, it initially explored discussions related to Milgram's obedience studies over time. Secondly, it outlined the basic experimental procedures, results, and initial academic responses to the studies. Thirdly, it explored major issues including research ethics, the generalizability of findings, and theoretical accounts. Fourthly, it analyzed the evolution of discussions on key issues, influenced by new replication methods and research utilizing the Stanley Milgram Papers since the 2010s. Finally, it reflected on the implications of related research and discussions for contemporary society, centering on the issues of pandemic and climate crisis.

Key words : authority, obedience, Stanley Milgram, pandemic, climate crisis

코로나 시기 한국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궤적 분석: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이용한 종단연구*

김예진 김시형 정다송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동안 국내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한 후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삶의만족과 외로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8개월 간격으로 수집된 국내 성인 381명의 세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직무소진의 변화를 유형화하는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4개의 집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양상에 따라 각각의 집단을 '회복집단(집단1)', '지연소진집단(집단2)', '탄력성집단(집단3)', '만성소진집단(집단4)'으로 명명하였다. 직무소진의 발달궤적 변화유형에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높은 연령은 지연소진집단과 탄력성집단에, 여성 성별과 높은 경제적 수준은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무소진의 변화유형에 따른 삶의만족과 외로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조사시기에 탄력성집단이 높은 삶의만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로움의 경우, 시점 간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연소진집단, 회복집단, 탄력성집단 순으로 외로움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전염병 상황에서 국내 성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코로나 대유행, 직무소진, 삶의만족, 외로움, 잠재계층성장모형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3A2A02089682).

† 교신저자: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1112호, Tel: 02-760-0535, E-mail : dhlawrence05@gmail.com



Copyright ©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코로나 19 팬데믹과 직무소진 경험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 발생 초기 정부는 당시 급증하는 확진자 수를 줄이고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제한 등의 장기간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대중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큰 변화와 정서적 피로감을 불러일으켰다(전애은, 이유나, 2023).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업무를 유지해야 했던 근로자들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심리적 부담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장기화되면서 직무소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Jalili et al., 2021). 직무소진은 만성적인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Schaufeli et al., 2009).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달리 감염에 대한 우려, 비대면 근무로 인한 고립감, ‘줌 피로(Zoom fatigue)’와 같은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추가되면서 번아웃의 발생 양상과 강도가 변화되었다(Costin et al., 2023). 코로나 발생 초기, 국내외에서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박유진 등, 2021; Dinibutun, 2020).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직무소진 현상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직장에서 개인에게 할당되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감염위험으로 인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형태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심리적 어려움 경험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시기 사회복지사의 소

진에 대해 살펴본 박상미 등(2022)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갑작스럽게 증가한 업무부담과 불안정감으로 인해 높은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ng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시기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실시한 이후 동료들과 교류가 감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상적 업무형태를 경험하면서 직무소진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코로나 시기 일반 산업 종사자(Matsuo et al., 2022)와 교사(Vargas Rubilar & Oros, 2021) 등 다양한 직종에서도 직무소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소진 양상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증가한 직무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부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직무소진 예방 및 경미한 증상에 대한 회복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22.08.16.).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증상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경미한 직무소진을 경험한 개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장을 당장 그만둬야 할 만큼 심각한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Ahola et al., 2017).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이란 의료계 종사자들의 직업소진을 비교한 Etesam 등(2021)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 직종과 관계없이 의료종사자들 모두가 직무소진을 경험하였으나, 고용상태, 병원 지원, 코로나 감염환자를 돌본 경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그 직무소

진의 양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 코로나 기간 더욱 높은 직무소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Etesam et al., 2021). 이처럼 직무소진은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동일한 직무소진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코로나 시기 직무소진 경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무소진을 높이는 개인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 연령, 근무형태, 업무특성, 자녀유무, 경제수준 등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먼저,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평소 번아웃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의 비해 승진이 늦거나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을 돌보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Ronen & Malach Pines, 2008; Innstrand et al., 2011). 한편, 코로나 발생 이후 Meyer 등(2021)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높은 직무소진을 경험한다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기존 보육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기혼 여성의 부담감이 증가한 반면, 직무자율성이나 동료의 지지는 감소했기 때문에 직무소진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근무환경과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남성들이 더 많은 직무소진을 경험하였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Zhang et al., 2022).

직무소진의 연령차에 대해 살펴본 Brewer와 Shapard(2004)에 의하면, 고령자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직무소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높기 때문에 직무소진을 비교적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건강과 직무소진을 살펴본 Luceño-Moreno 등(2022)의 종단연구에서는 젊은 층의 경우 노년층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번아웃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젊은층이 노년층보다 향후 근무조건에 대한 걱정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 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접하기 때문에 번아웃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중·노년층이 젊은층에 비해 코로나 감염에 더 취약하고, 코로나 이후 가족 돌봄 및 업무 책임의 증가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직무소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Hayes et al., 2021). 이렇듯 선행연구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직무소진 양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과 젊은 연령층에서 직무소진이 증가했으나 이후에는 남성과 고령층에서도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코로나 상황에서 성별과 연령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 시기 비대면 근무 환경의 증가는 개인에게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들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직무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Kumaresan et al., 2022).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재택근무 활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제를 운영한 국내의 기업은 무려 4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용노동부, 2020.09.24.). 이러한 재택근무가 실시된 초기 당시 대중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인다는 점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Khanna et al., 2020),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심리적 어려움과 소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황수경, 2022). 코로나 이전부터 이러한 직무소진과 근무 형태의 연관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 이전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학 교수들의 직무소진에 대해 조사한 McCann과 Holt(2009)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는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학생들의 높은 동기부여 덕분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보다 직무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와 반대로 온라인 근무가 직무소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vans 등(2022)의 4시점 종단연구에 의하면, 외향적인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재택근무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무소진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으나, 원격 근무로 전환된 후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어 직무참여와 만족도가 저해되어 직무소진이 증가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코로나 시기 강제 출근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의료계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감염환자에게 더 많이 노

출되고, 높은 업무량을 요구받기 때문에 직무소진을 더욱 많이 경험하였다는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Alrawashdeh et al., 2021).

이에 더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대폭 감소시키기도 하였다(경향신문, 2021.11.01.). 코로나 이후 이러한 업무특성의 변화는 개인으로하여금 직무소진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발생 이전 연구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은 개인 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직무소진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 Cuyper et al., 2014).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 발생 이후 이탈리아 의료종사자들의 소진에 대해 살펴본 Fiabane 등(2021)의 연구에서도 정규직이나 일선근로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업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 인해 직무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기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 간의 직무소진의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확인되기도 하였다(Hwang et al., 2021).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 코로나 시기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무형태, 업무특성을 빈번히 언급해왔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근무형태 및 업무특성과 더불어 경제수준과 자녀유무도 직무소진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진행된 Kabir 등(2016)의 이란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할수록 직무소진을 높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데 비해 급여에 변동이 없을 경우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직무소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유사하게, 코로나 이후 연구들 가운데 Rasdi 등(2021)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기간 높은 수준의 경제불안을 갖고 있는 개인일수록 직무소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Üngüren 등(2021)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광산업 운영이 중단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복지가 낮은 호텔 종사자들이 경제적 복지가 높은 종사자들보다 고용 및 재정적 불안이 높아 직무소진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 중국 병원 내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직무소진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uo et al., 2021).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 수준이 코로나 시기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녀유무도 직무소진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이전 일반적인 상황에서 간호사의 직무소진에 대해 살펴본 연구(Cañadas-De la Fuente et al., 2018)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간호사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해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녀 존재 자체가 직무소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근무형태가 재택근무로 변화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들도 휴교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한 공간에서 가정과 일을 양립해야 함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2020). Aguiar 등(2021)의 2년 종단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1차시점과 비교하여 2차시점에서 직무소진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는 일과 가족역할의 균형을 맞추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껴 아버지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의 직무소진이 업무특성과 자녀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무소진 양상에 따른 외로움 및 삶의만족의 차이

코로나 시기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 직무소진의 수준은 다를 수 있으며, 그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후 경험하게 되는 심리 증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개인이 경험하는 직무소진의 유형에 따라 외로움(Karcz et al., 2022)과 삶의만족(Rink et al., 2023)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로나 이후 엄격한 방역조치로 인해 대중들 사이에 고립감과 외로움의 정서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원격근무의 도입은 동료들과의 직접 소통하는 기회조차 차단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하였다(김수영 등, 2022). 이러한 외로움은 코로나 시기 경험하는 직무소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코로나 시기 401명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시기 외로움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 의사는 44.4%였으며, 직업적 소진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보고한 의사들의 경우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fei-Dodoo et al., 2021). 더불어, Karcz 등(2022)의 연구에 의하면, 높은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자신을 다른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점점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코로나 시기 직무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구와 동료의 지지를 강화하여 외로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로움과 더불어 코로나 시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많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은 이후 소진, 심리적 웰빙, 가족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했다(김의중, 허창구, 2020). 그 중 특히, 코로나 시기 경험하게 되는 직무소진은 삶의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Martins 등(2022)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시기 삶의만족도는 직무소진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삶의만족도가 높은 수준의 직무소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하여 의료종사자들의 번아웃과 삶의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Łaskawiec-Żuławińska 등(2024)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직무소진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소진과 관련된 심각한 심리적 결과와 낮은 삶의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직무소진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웰빙 즉 삶의만족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직무소진의 주요 지표인 감정소진과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는 외로움 및 삶의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직무소진과 외로움에 대해 살펴본 Shapiro, Zhang과 Warm(2015)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소진 지표 가운데 감정소진과 비인격화를 높게 경험한 사람은 이후 상당히 높은 외로움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Łaskawiec-Żuławińska 등(2024)의 코로나 연구에서도 코로나 시기 직무소진의 비인격화 수준

이 높고, 개인적 성취를 낮게 경험할수록 삶의만족도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었다. 직무소진에서 나타나는 비인격화는 직무상황에서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타인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Maslach, & Jackson, 1981). 이는 사회적 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 외로움과 삶의만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기 특성상 대면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내 소통 어려움과 갈등문제 등으로 직무소진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개인의 삶의만족과 더불어 사회적 교류의 어려움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외로움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개인의 직무소진에 따른 외로움과 삶의만족의 차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소진 잠재집단 분류의 필요성

직무소진은 장기간 누적될 경우 무력감, 절망감, 신체적 고갈, 부정적인 자아개념, 직업 및 삶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외 연구에서는 의료계 업종을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하여 코로나 기간동안 직무소진에 대한 횡단 및 종단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일부 직업군 대상 연구와 단일 시점에서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기에 다양한 대상의 직무소진을 확인하거나 직무소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예측력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직무소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을 위해서는 단일 시점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직무소진은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각 개인의 경험과 직무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을 하나의 동질적인 개념으로만 다루고 있기에 코로나 시기의 직무소진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무소진집단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재집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세 차례에 걸친 종단 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기 동안 국내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직무소진의 각 유형별 외로움과 삶의만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적 하위집단의 형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한국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양상에 따라 분류된 잠재계층 간 삶의만족, 외로움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코로나 시기 시간적 변화에 따른

직무소진의 양상과 직무소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설문은 100만명 이상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설문 전문 업체인 'OOO'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은 연령과 성별을 최대한 전국의 지역별 인구센서스 기준에 맞추어 실시되었으며, 설문을 완료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서베이 전문 기관을 통해 지급되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었다. 해당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국내 첫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시기는 백신접종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시점이다. 세 번째 설문조사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마지막 6차 대유행이 발생한 시점이다. 첫 시점의 참여자는 1,434명이었으며, 두 번째 시점의 참여자는 941명, 마지막 세 번째 시점의 참여자는 59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제거법을 통해 결측을 처리하였으며, 직무소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1차 조사 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38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이전 연구에서 수집·정리한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분석(secondary analysis)에 해당하며, 분석에 사용된 381명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변인	n(%)
성별	1) 남성	251(65.9%)
	2) 여성	130(34.1%)
연령	2) 19-29세	34(8.9%)
	3) 30-39세	84(22%)
	4) 40-49세	95(24.9%)
	5) 50-59세	111(29.1%)
	6) 60-69세	57(15%)
	전체	381(100%)
근무형태	1) 정규직	315(82.7%)
	2) 비정규직	63(16.5%)
	3) 기타	3(0.8%)
업무특성	1) 대면 업무	230(60.4%)
	2) 비대면 업무	149(39.1%)
	3) 기타	2(0.5%)
경제적 수준	1) 중산층 이하	199(52.2%)
	2) 중산층 이상	182(47.7%)
자녀 유무	1) 없음	156(40.9%)
	2) 있음	225(59.1%)
	전체	381(100%)

측정 도구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코로나 시기 국내 성인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변화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1차 설문 시점에 응답한 데이터로, 성별(남성 = 1, 여성 = 2), 근무형태(정규직 = 1, 비정규직 = 2), 업무특성(대면 = 1, 비대면 = 2), 자녀유무(없음 = 1, 있음 = 2), 경제적 수준(중산층 이

하 = 1, 중산층 이상(중산층 포함) = 2)을 확인하였다. 변인 중 연령(21~59세, $M=46.1$, $SD=11.41$)은 연속형 변수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소진(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MBI-GS)

본 연구에서는 직무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1996)이 개발하고 신강현(2003)이 국내 타당화한 MBI-GS의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MBI-GS는 소진의 하위 요인인 소진 5 문항, 냉소 5 문항, 직업자신감 6 문항,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쳐있음을 느낀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지쳐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부터 3차까지 세 번에 걸쳐 수집한 해당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4부터 .96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삶의만족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본 연구에서는 삶의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삶의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WLS는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등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부터 3차까지 세 번에 걸쳐 수집한 해당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부터 .95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외로움(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UCLA-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외로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1996)이 개발하고 진은주와 황석현(2019)이 타당화한 한국판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을 사용하였다. UCLA-3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자주 느끼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다고 자주 느끼나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다고 자주 느끼나요?'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부터 3차까지 세 번에 걸쳐 수집한 해당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부터 .92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성인 381명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의 변화를 유형화하는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 계층을 확인하고, 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Mplus 8.3과 SPSS 21.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1.0을 이용하여 연구참여

자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직무소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의 한 형태인 잠재성장계층모형(latent growth class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혼합모형은 사람중심적(person-centered) 방법으로 유사성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며, 이를 통해 추정된 집단을 잠재계층으로 정의한다(Jung & Wickrama, 2008).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AIC, BIC, Adjusted BIC와 이전 모형과 적합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BLRT, LMR-LRT, 잠재계층 분류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Entropy까지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Wang & Wang, 2019). 셋째,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 간의 심리변인과 코로나 관련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은 계층 간 동등성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Kruskal-Wallis 비모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계층 간 차이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McKight & Najab, 2010).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인 직무소진, 삶의 만족, 외로움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Kline(2023)의 제안에 따라 왜도는 3, 첨도는 7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구변인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 직무소진1차	-								
2. 직무소진2차	.744**	-							
3. 직무소진3차	.674**	.757**	-						
4. 삶의만족1차	-.259**	-.278**	-.256**	-					
5. 삶의만족2차	-.272**	-.365**	-.327**	.708**	-				
6. 삶의만족3차	-.192**	-.226**	-.262**	.652**	.702**	-			
7. 외로움1차	.614**	.536**	.464**	-.380**	-.408**	-.291**	-		
8. 외로움2차	.526**	.662**	.547**	-.324**	-.439**	-.310**	.765**	-	
9. 외로움3차	.483**	.539**	.583**	-.306**	-.360**	-.341**	.713**	.789**	-
10. 성별	.137**	.072	.023	-.116*	-.086	-.083	.044	.018	.015
11. 연령	-.367**	-.315**	-.301**	-.016	-.017	-.067	-.104*	-.107*	-.080
12. 자녀유무	-.277**	-.250**	-.235**	.134**	.129*	.095	-.190**	-.179**	-.152**
13. 근무형태	-.002	.038	-.006	-.102*	-.111*	-.115*	.053	.034	.023
14. 업무특성	.078	.012	.066	-.070	-.095	-.034	.008	-.004	.028
15. 경제적수준	-.204**	-.192**	-.188**	.317**	.381**	.267**	-.239**	-.213**	-.195**
평균	3.40	3.39	3.41	2.15	2.15	2.18	3.61	3.66	3.72
표준편차	1.01	1.02	0.93	0.49	0.50	0.51	1.31	1.28	1.25
왜도	-0.36	-0.40	-0.60	-0.08	0.00	-0.02	-0.08	-0.19	-0.14
첨도	-0.51	-0.43	-0.43	-0.11	-0.01	-0.23	-0.66	-0.37	-0.55

* $p < .05$, ** $p < .01$.

의 첨도와 왜도가 정규성과 경향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와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직무소진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1계층부터 계층을 늘려가며 잠재 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AIC와 BIC, Adjusted BIC, Entropy는 2계층 모형부터 4계층 모형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계층의 경우 LMR-LRT와 BLRT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나의 분류가 5% 미만으로 확인되어 최종모형 후보에서 제외하였다. 2계층과 4계층은 모든 적합도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수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라고 판단하여 연구자들은 해석가능성을 토대로 최종모형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집단의 분류를 확인했을 때 2계층의 2가지 유형이 4계층 모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2개의 집단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기에 4계층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Van De Schoot et al, 2017).

4계층 모형의 계층별 소진 변화 양상은 표 3, 그림 1과 같다. 1계층은 첫 시점부터 세 번째 시점까지 소진이 감소한 계층이었으며 ‘회복집단’으로 명명하였다($M Slope=-0.766$, $p<.001$). 2계층은 1계층과 반대로 첫 시점부터 세 번째 시점까지 소진이 증가한 계층으로 ‘지연소진집단’이라 명명하였다($M Slope=0.608$,

$p<.001$). 3계층은 첫 시점부터 세 번째 조사시점까지 꾸준히 소진이 낮게 유지되어 ‘탄력성 집단’으로($M Slope=0.002$, $p>.05$), 4계층은 첫 시점부터 세 번째 조사시점까지 꾸준히 높아 ‘만성소진집단’으로 명명하였다($M Slope=-0.025$, $p>.05$).

앞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확인된 직무소진의 변화 유형(회복, 지연소진, 탄력성, 만성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표 3. 잠재계층성장분석 모형 적합도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AIC	2562.735	2503.814	2500.348	2476.456
BIC	2594.277	2547.184	2555.547	2543.484
Adjusted BIC	2568.895	2512.283	2511.128	2489.546
LMR-LRT	-	69.867***	8.963	28.306*
BLRT	-	-1277.8***	-1240.907	-1236.175
Entropy	-	0.82	0.83	0.821
집단별 샘플 수(%)	381(100%)	110(29%) 271(71%)	15(4%) 270(71%) 96(25%)	23(6%) 39(10%) 88(23%) 231(61%)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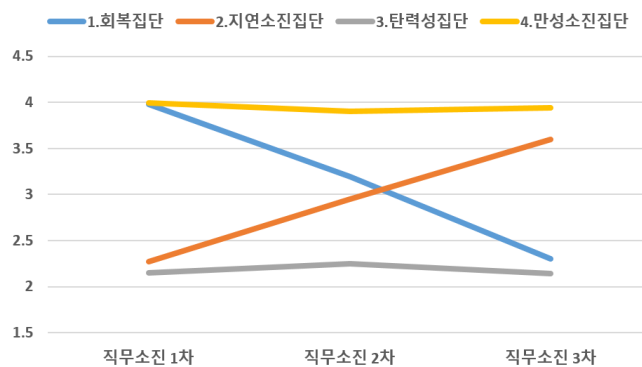


그림 1. 최종모형 특성과 초기치 및 변화율

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참조 집단을 만성소진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을 확인한 결과, 연령($Exp(B)=1.055, p<.001$)과 경제적수준($Exp(B)=2.187, p<.01$)이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를 해석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소진집단보다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참조 집단을 만성소진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지연소진집단에 속할 확률을 확인한 결과, 연령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Exp(B)=1.046, p<.05$). 해당 결과를 해석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소진집단보다 지연소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참조 집단을 지연소진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을 확인한 결과, 성별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Exp(B)=0.362, p<.05$). 해당 결과를 해석해보면, 여성이 지연소진집단보다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참조 집단을 회복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소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분류된 4개의 집단 간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삶의만족도, 외로움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등분산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동질성이 확인되지 않아 비모수 통계 기법인 Kruskal-Wallis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인에서 차이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확히 어떤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짝비교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삶의만족은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만성소진집단보다 탄력성집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검증에서 다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외로움은 1차에서 지연소진집단, 탄력성집단보다 회복집단, 만성소진집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로움 2차에서는 탄력성집단이 가장 점수가 낮고 회복집단과 지연소진집단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만성소진집단은 모든 집단들보다 점수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3차 점수는 회복집단과 탄력성집단, 지연소진집단과 만성소진집단 간의

표 4. 최종모형 특성과 초기치 및 변화율

	1.회복집단	2.지연소진집단	3.탄력성집단	4.만성소진집단
직무소진 1차	3.98	2.27	2.15	3.99
직무소진 2차	3.19	2.95	2.25	3.9
직무소진 3차	2.3	3.6	2.14	3.94
인원(%)	23(6%)	39(10%)	88(23%)	231(61%)
초기치	3.876 ^{***}	2.378 ^{***}	2.158 ^{***}	3.987 ^{***}
변화율	-0.766 ^{***}	0.608 ^{***}	0.002	-0.025

^{***} $p<.001$.

표 5. 다항 로지스틱 분석

	만성소진VS탄력성			만성소진VS지연소진			지연소진VS탄력성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연령	.053	.015	1.055***	.045	.019	1.046*	.008	.021	1.008
경제적 수준 (중산층이하)	.782	.278	2.187**	.338	.356	1.402	.445	.400	1.560
성별(여성)	-.121	.297	.886	.895	.455	2.448	-1.016	.496	.362*
자녀유무(유)	-.428	.337	.652	.051	.426	1.052	-.478	.491	.620
근무형태 (비정규직)	.484	.410	1.623	-.243	.467	.784	.727	.544	2.070
업무특성 (비대면)	.152	.280	1.164	-.138	.357	.871	.290	.399	1.337

* $p < .05$, *** $p < .001$.

비교집단: 경제적수준(중산층이상), 성별(남성), 자녀유무(무), 근무형태(정규직), 업무특성(대면)

표 6. Kruskal-Wallis 차이검증

		1.회복	2.지연소진	3.탄력성	4.만성소진	χ^2	사후검증
삶의만족	1차	3.58(1.27)	3.58(1.27)	4.18(1.37)	3.42(1.24)	19.4***	4<3
	2차	4.20(1.27)	3.67(1.31)	4.22(1.23)	3.40(1.22)	23.9***	4<3
	3차	3.97(0.93)	3.69(1.26)	4.23(1.29)	3.51(1.21)	22.2***	4<3
외로움	1차	2.28(0.37)	1.90(0.46)	1.73(0.42)	2.33(0.42)	109***	2,3<1,4
	2차	2.02(0.50)	2.03(0.40)	1.75(0.45)	2.33(0.44)	89.4***	3<1,2<4
	3차	2.01(0.47)	2.24 (0.40)	1.72 (0.42)	2.36 (0.44)	97.8***	1,3<,2,4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회복집단, 탄력성 집단보다 지연소진집단, 만성소진집단의 점수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세 차례의 종단 조사를 통해 코로나 시기 동안 국내 성인의 직무소진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또한, 각 유형별 삶의만족과 외로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시기 동안 직무소진의 종단적 변화수준과 형태를 살펴본 결과 4개 잠재집단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각 유형은 ‘회복집단(Recovery, 집단 1), 지연소진집단(Delayed

burnout, 집단 2), 탄력성집단(Resilience, 집단 3), 만성소진집단(Chronic burnout, 집단 4)'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회복집단(6%)'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던 1차 시점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3차 시점까지 직무소진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자연소진집단(10%)'은 조사 기간 동안 직무소진의 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탄력성집단(23%)'은 초기 시점부터 매우 낮은 수준의 직무소진 경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성소진집단(61%)'은 극심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소진을 경험하며, 비교적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증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을 보이는 고위험 집단으로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1%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 성인의 직무소진 수준이나 형태가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추후 개입대상과 중재 지점에 차별을 두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회복집단과 탄력성집단'의 경우, 낮은 소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고위험 소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국가차원에서 평소 정서적 소진을 관리하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무소진 수준이 높아지는 '자연소진집단과 꾸준히 높은 소진을 유지하는 만성소진집단'의 경우,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개인의 긍정심리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치료적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직무소진, 일과 삶의 불균형에 관한 잠재유형을 '평균 소

진집단, 적응집단, 부적응집단'과 같이 3계층으로 분류한 Shin 등 (2022)의 연구와 코로나 전후 교사의 소진에 관한 프로파일 전이양상을 3개의 계층(낮은 도전형, 평균 소진형, 정서적 고갈형)으로 분류한 김준미 등(202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며, 일본 의료진의 정서적 소진 정도에 따라 '낮은 안정형, 중간 수준의 불안정형, 높은 불안정형, 높은 감소형'으로 구분한 해외의 연구(Kanayama et al., 2016)와도 일부 맥을 같이한다. 이렇듯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직무소진 심각도에 따라 계층을 분류하고 있으나 대부분 특정 직업군 대상의 횡단연구로 수행되었거나 전후 시점에 대한 범주 간 전이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3차 이상의 종단적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유형 간 성장 패턴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확산세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소진과 무력감에 대한 변화양상을 시간 궤적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그에 따른 시의적절한 심리개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팬데믹 기간동안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직무소진 유형(회복, 자연소진, 탄력성, 만성소진)에 대한 파악을 통해 다차원적인 소진양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특정시점에서의 개입이 아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맞춤형 개입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둘째, 직무소진의 발달궤적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 성별, 근무형태, 업무특성, 경제수준, 자녀유무)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소진집단보다 자연소진집단

과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손영주 등, 2008)과 직장인(Marchand et al., 2018), 미용 종사자(유은주 등, 2014), 간호사(Gomez-Urquiza, et al., 2017) 등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나 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근무경력 및 재직기간이 오래된 높은 연령층에서 자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직무경험을 통해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높임으로써 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추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달리 사회경험의 축적 정도나 직무상황에 대한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낮은 연령층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 및 과업수행에 대한 압박감을 경험해 비교적 정서적 소진을 더욱 많이 느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연소진 집단보다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지난 몇 십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족책임과 양육에 대한 역할구도에서 남성은 여전히 재정적 부양자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압박에 자유로울 수 없다(Lee, 2019). 이러한 경제적 역할에 대한 부담은 코로나 시기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직무소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및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감정표현과 소통에서 더욱 개방적인데 반해 남성은 비교적 감정을 억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더욱 취약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Lee et al.,

2013). 이는 코로나로 인한 직무소진의 유병률과 성차에 대해 확인한 스페인의 연구(Almulih et al., 2022)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비율은 높으나, 코로나 이후 근로시간의 증가와 업무부담으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소진 집단보다 탄력성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직무상황에서 정서적 소진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웨덴 여성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Soares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일수록 직무상황에서 극심한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 및 정서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경제적 문제에 대해 자주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더 지쳐있고 냉소적이며 낮은 학업적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Tlili et al., 2021).

앞서 살펴본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면 남성이고 낮은 연령이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 팬데믹 시기 직무소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무소진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낮은 연령의 경우 업무부담을 재정비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료들과 상호지지 관계를 형성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남성

에게는 소진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 몰입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조절 기전에 대한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직무소진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경제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여 취약집단에 맞춤형 개입전략이 설계되고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근무형태, 조직문화 및 동료와의 관계, 직무만족도 및 동기 변인 등을 포함하여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외에 업무특성과 자녀유무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소진의 변화유형에 따른 삶의만족과 외로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의 경우 모든 조사 시기에 탄력성집단이 만성소진집단보다 삶의만족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직무소진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삶의만족 수준이 낮아지며, 반대로 직무소진이 낮아지면 삶의만족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가치를 뜻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의 개념을 포함하는데(Kvarme et al., 2009), 몇 해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동훈 등,

2021). 코로나 발병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된 기업 내 탄력근무제 및 재택근무의 병행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양육에 요구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직장에서의 가정 내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신체적·정서적 피로감과 소진을 야기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Huo et al., 2021).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은 많은 이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소진을 가져와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연, 이충기, 2020). 따라서,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 기관의 수를 늘리고, 스트레스와 소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조사 시기에 만성소진집단의 외로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점 간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연소진집단, 회복집단, 탄력성집단의 순으로 외로움이 높게 나타났다. 이은영과 유금란(2023)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전면 재택근무 전환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함에 따라 주변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감이나 외로움은 대표적인 내적 부정정서로 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경우 개인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황예은 등, 2022).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의 경우 서구문화권의 국가들에 비해 평소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고려하는 타인지향적 외로움(other-oriented loneliness)을 많이 경험하는데

(서영석 등, 2020), 코로나와 같이 대인과의 교류나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타인 지향적 외로움이 증폭되어, 업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소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예은 등, 2022). 이를 위해 코로나 상황에서 외로움이나 소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일과 삶의 영역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다. 그동안 많은 학문분과에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의료진, 호텔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경험에 관해 살펴 보았으나, 이는 대부분 특정 시점의 조사를 통한 횡단적 연구로서 일반성인의 소진경험에 관해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본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전통적인 변수 중심적 접근방식(variable-centered)을 통해 변수와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전체 모집단의 변화를 추정하고 있으나, 개개인에 대한 추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주된 하나의 평균값 이외에 다양한 하위 집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하위 집단의 직무소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인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사용하여 코로나 시기동안 약 8개월 간격으로 3차례의 조사에 걸쳐 국내 일반 성인의 직무소진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떠한 변화양상을 띠고 있는지 각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예측요인의 영향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전염병 상황에서 국내 성인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했기에 연구대상이 주관적 기억을 바탕으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왜곡의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 연구방법으로 인한 응답편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질적자료, 실험연구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시기 동안 종단적 변화궤적에 따른 개인의 직무소진 잠재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근무형태나 업무특성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예측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고 직무소진을 완화할 수 있는 매개변수나 조절변수가 무엇인지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이나 외로움 외에도 직무수행이나 직무만족감과 같은 직무소진과 관련한 다양한 결과변수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기 직무소진 정도를 조사하였으나, 직업군이나 직무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직무소진의 발달궤적 변화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근무형태를 대면 여부

에 따라 이분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재택근무, 원격근무, 업무강도, 복잡성과 같은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각 직업군별 소진 경험의 유형과 근무형태를 좀 더 세분화하여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소진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코로나 발생 이후 3차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4-5차례의 추가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수집과 단계별 예측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직무소진의 복잡한 양상을 이해하고 시점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여 각 계층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1.11.01.).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년 연속 감소.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10932001>
- 고용노동부 (2020.09.24.).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899FD0A5-9ECE-4B30-96FC-78FA702F1660
- 김수영, 강명주, 권하늬, 이서경 (2022).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과 직장 인간관계의 변화. *한국사회정책*, 29(3), 31-72.
- 김영미 (2020). “코로나-19 속 한국의 일·가족 양립 현실, 위기로 끝낼 것인가, 변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월간 공공정책*, 174: 56-59.
- 김의중, 허창구 (2020).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가정, 조직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3(3), 267-296.
- 김준미, 서은애, 신호정 (2022). 코로나 19 전후 초등교사 소진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양상과 직무요구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81-107.
- 박상미, 박해궁, 배은석 (2022). 코로나19 시기,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153-166.
- 박유진, 차경숙, 이기령 (2021).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에서 임상간호사의 소진 영향요인-신체증상, 우울, 감염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중심으로. *한국간호연구학회지*, 5(3), 11-23.
- 박창연, 이충기 (202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관광종사자들의 스트레스와 직업불안이 직무만족과 삶의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9(8), 43-57.
- 보건복지부 (2022.08.16.).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쉽표를 더하세요.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소진관리프로그램 ‘마음쉽표’ 운영.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dist_no=372596&tag=&nPage=127
-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7.

- 손영주, 송영아, 최은영 (2008).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16(3), 225-231.
- 신강현 (2003). 일반직 종사자를 위한 직무 소진 척도 (MBI-GS)에 대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3), 1-17.
- 유은주, 심선녀, 김순구 (2014). 미용실 종사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427-439.
- 이동훈, 김예진, 황희훈, 남슬기, 정다송 (2021).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동안 한국인의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종단 두시점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4), 629-659.
- 이은영, 유금란 (2023). 잠재계층분석 (LCA) 을 이용한 COVID-19 시기 재택근무 워킹맘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2(3), 69-114.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경찰공무원,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전애은, 이유나 (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공학 지상직 직원이 경험한 심리적 소진의 회복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37(2), 131-145.
- 진은주, 황석현 (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6(10), 53-80.
- 황수경 (2022). 코로나 전후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과 쟁점: 분기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황예은, 조예진, 최유승, 현명호 (2022). 재택근무 동안 기질과 우울 및 불안 간 관계에서 일-가정 갈등과 외로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스트레스研究*, 30(2), 75-84.
- Aguiar, J., Matias, M., Braz, A. C., César, F., Coimbra, S., Gaspar, M. F., & Fontaine, A. M. (2021). Parental burnout and the COVID 19 pandemic: How Portuguese parents experienced lockdown measures. *Family Relations*, 70(4), 927-938. <https://doi.org/10.1111/fare.12558>
- Ahola, K., Toppinen-Tanner, S., & Seppänen, J. (2017). Interventions to alleviate burnout symptoms and to support return to work among employees with burnout: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urnout research*, 4, 1-11. <https://doi.org/10.1016/j.burn.2017.02.001>
- Almulih, Q. A. A., Almulih, F. A. A., Alsultan, S. K. A., Alsultan, D. A. H., & Alsultan, Y. M. H. (2022). Gender-based Differences in Burnou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e Female Nurses More Prone to Burnout Than Males?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ciences, (IV)*, 2061-2073. doi: 10.53730/ijhs.v6nS4.6557
- Alrawashdeh, H. M., Al-Tammemi, A. A. B., Alzawahreh, M. K., Al-Tamimi, A., Elkholy, M., Al Sarireh, F., ... & Ghoul, I. (2021). Occupational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mong physicians in times of COVID-19 crisis: a convergent parallel mixed-method study. *BMC public health*, 21, 1-18. doi: 10.1186/s12889-021-10897-4
- Brewer, E. W., & Shapard, L. (2004). Employee burnout: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 between age or years of experi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3(2), 102-123.
<https://doi.org/10.1177/15344843042633>
- Cañadas-De la Fuente, G. A., Ortega, E., Ramirez-Baena, L., De la Fuente-Solana, E. I., Vargas, C., & Gómez-Urquiza, J. L. (2018). Gender, marital status, and children as risk factors for burnout in nurses: A meta-analytic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10), 2102.
doi: 10.3390/ijerph15102102
- Costin, A., Roman, A. F., & Balica, R. S. (2023). Remote work burnout, professional job stress, and employee emotional exhaus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rontiers in psychology*, 14, 1193854.
<https://doi.org/10.3389/fpsyg.2023.1193854>
- De Cuyper, N., Castanheira, F., De Witte, H., & Chambel, M. J. (2014). A multiple group analysis of associations between emotional exhaustion and supervisor rated individual performance: Temporary versus permanent call center work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53(4), 623-633.
<https://doi.org/10.1002/hrm.21608>
- Diener, E., Larsen, R. J., Levine, S., & Emmons, R. A. (1985). Intensity and frequency: dimensions underly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5), 1253.
doi: 10.1037//0022-3514.48.5.1253
- Dinibutun, S. R. (2020).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among physicians: an evaluation during a period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healthcare leadership*, 85-94.
doi: 10.2147/JHL.S270440
- Etesam, F., Akhlaghi, M., Vahabi, Z., Akbarpour, S., & Sadeghian, M. H. (2021). Comparative study of occupational burnout and job stress of frontline and non-frontline healthcare workers in hospital wards during COVID-19 pandemic. *Iranian Journal of Public Health*, 50(7), 1428. doi: 10.18502/ijph.v50i7.6633
- Evans, A. M., Meyers, M. C., De Calseyde, P. P. V., & Stavrova, O. (2022). Extro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predict deteriorating job outcomes during the COVID-19 transition to enforced remote work.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3), 781-791.
<https://doi.org/10.1177/19485506211039092>
- Fiabane, E., Gabanelli, P., La Rovere, M. T., Tremoli, E., Pistarini, C., & Gorini, A. (2021). Psychological and work related factors associated with emotional exhaustion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during the COVID 19 outbreak in Italian hospitals. *Nursing & Health Sciences*, 23(3), 670-675.
doi: 10.1111/nhs.12871
- Gómez-Urquiza, J. L., De la Fuente-Solana, E. I., Albendín-García, L., Vargas-Pecino, C., Ortega-Campos, E. M., & Canadas-De la Fuente, G. A. (2017). Prevalence of burnout syndrome in emergency nurses: A meta-analysis. *Critical care nurse*, 37(5), e1-e9.
<https://doi.org/10.4037/ccn2017508>
- Hayes, S. W., Priestley, J. L., Moore, B. A., & Ray, H. E. (2021). Perceived Stress, Work-Related Burnout, and Working From Home Before and During COVID-19: An Examination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 Sage Open*, 11(4).
<https://doi.org/10.1177/21582440211058193>
- Huo, L., Zhou, Y., Li, S., Ning, Y., Liu, Z., & Zhang, X. Y. (2021). Burnout and its relationship with depressive symptoms in medical staff during the COVID-19 epidemic in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12, 616369. doi: 10.3389/fpsyg.2021.616369
- Hwang, H., Hur, W. M., & Shin, Y. (2021). Emotional exhaustion among the South Korean workforce before and after COVID 19.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4(2), 371-381. doi: 10.1111/papt.12309
- Innstrand, S. T., Langballe, E. M., Falkum, E., & Aasland, O. G. (2011). Exploring within-and between-gender differences in burnout: 8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4, 813-824. doi: 10.1007/s00420-011-0667-y
- Jalili, M., Niroomand, M., Hadavand, F., Zeinali, K., & Fotouhi, A. (2021). Burnout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during COVID-19 pandemic: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94, 1345-1352. doi: 10.1007/s00420-021-01695-x
- Jung, T., & Wickrama, K. 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https://doi.org/10.1111/j.1751-9004.2007.00054.x>
- Kabir, M. J., Heidari, A., Etemad, K., Gashti, A. B., Jafari, N., Honarvar, M. R., ... & Lotfi, M. (2016). Job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health care workers in Golestan Province, Iran. *Electronic physician*, 8(9), 2924. doi: 10.19082/2924
- Kanayama, M., Suzuki, M., & Yuma, Y. (2016). Longitudinal burnout-collaboration patterns in Japanese medical care workers at special needs schools: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39-146. <https://doi.org/10.2147/PRBM.S93846>
- Karcz, E., Zdun-Ryżewska, A., & Zimmermann, A. (2022, January). Loneliness, complaining and professional burnout of medical personnel of psychiatric wards during COVID-19 pandemic – cross-sectional study. In *Healthcare* (Vol. 10, No. 1, p. 145). MDPI. doi: 10.3390/healthcare10010145
- Khanna, R., Murnane, T., Kumar, S., Rolfe, T., Dimitrieski, S., McKeown, M., ... & Gandhi, C. (2020). Making working from home work: reflections on adapting to change. *Australasian Psychiatry*, 28(5), 504-507. <https://doi.org/10.1177/1039856220953701>
- Kline, R. B. (2023).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umaresan, A., Suganthirababu, P., Srinivasan, V., Vijay Chandhini, Y., Divyalaxmi, P., Alagesan, J., ... & Prathap, L. (2022). Prevalence of burnout syndrome among Work-From-Home IT professiona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ork*, 71(2), 379-384. doi: 10.3233/WOR-211040
- Kvarme, L. G., Haraldstad, K., Helseth, S., Sørnum, R., & Narvig, G. K. (2009).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 12-13-year-old school children: a cross-sectional surve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7, 1-8. doi: 10.1186/1477-7525-7-85
- Łaskawiec-Żuławińska, D., Grajek, M., Krupa-Kotara, K., Szlacheta, P., Karacan, H., Roszak, M., ... & Korzonek-Szlacheta, I. (2024). Burnou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Healthcare Workers Related to the COVID 19 Pandemic (Silesia, Poland). *Behavioural Neurology*, 2024(1), 9945392. doi: 10.1155/2024/9945392
- Lee, S., Kim, S. L., Park, E. K., & Yun, S. (2013). Social support, work-family conflict, and emotional exhaustion in South Korea. *Psychological reports*, 113(2), 619-634. doi: 10.2466/21.14.PR0.113x23z3
- Lee, Y. (2019). Transitions in adulthood and women's attitudes toward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South Korea.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 1815-1825. doi: 10.1007/S10826-019-01403-X
- Luceño-Moreno, L., Talavera-Velasco, B., Vázquez-Estévez, D., & Martín-García, J. (2022). Mental health, burnout, and resilience in healthcare professionals after the first wave of COVID-19 pandemic in Spai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64(3), e114-e123. doi: 10.1097/JOM.0000000000002464
- Marchand, A., Blanc, M. E., & Beauregard, N. (2018). Do age and gender contribute to workers' burnout symptoms?. *Occupational medicine*, 68(6), 405-411. doi: 10.1093/occmed/kqy088
- Martins, V., Serrão, C., Teixeira, A., Castro, L., & Duarte, I. (2022). The mediating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burnout among Portuguese nurses during COVID-19 pandemic. *BMC nursing*, 21(1), 188. doi: 10.1186/s12912-022-00958-3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99-113. <https://doi.org/10.1002/job.4030020205>
- Matsuo, T., Yoshioka, T., Okubo, R., Nagasaki, K., & Tabuchi, T. (2022). Burnout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healthcare workers and the general working population in Japa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wide cross-sectional internet-based study. *BMJ open*, 12(11), e064716. doi: 10.1136/bmjopen-2022-064716
- McCann, J. T., & Holt, R. (2009). An exploration of burnout among online university profess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arning & Distance Education/Revue internationale du e-learning et la formation à distance*, 23(3), 97-110.
- McKight, P. E., & Najab, J. (2010). Kruskal wallis test.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1-1.
- Meyer, B., Zill, A., Dilba, D., Gerlach, R., & Schumann, S. (2021). Employee psychological well being during the COVID 19 pandemic in Germany: A longitudinal study of demands, resources, and exhaus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4), 532-550. doi: 10.1002/ijop.12743
- Ofei-Dodoo, S., Mullen, R., Pasternak, A., Hester, C. M., Callen, E., Bujold, E. J., ... &

- Kimminau, K. S. (2021). Loneliness, burnout, and other types of emotional distress among family medicine physicians: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Board of Family Medicine*, 34(3), 531-541. doi: 10.3122/jabfm.2021.03.200566
- Rasdi, R. M., Zaremohzzabieh, Z., & Ahrari, S. (2021). Financial insecur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pillover effects on burnout-disengagement relationships and performance of employees who moonlight. *Frontiers in Psychology*, 12, 610138. <https://doi.org/10.3389/fpsyg.2021.610138>
- Rink, L. C., Silva, S. G., Adair, K. C., Oyesanya, T. O., Humphreys, J. C., & Sexton, J. B. (2023). Characterizing burnout and resilience among nurses: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emotional exhaustion, emotional thriving and emotional recovery. *Nursing Open*, 10(11), 7279-7291. doi: 10.1002/nop2.1980
- Ronen, S., & Malach Pines, A. (2008). Gender differences in engineers' burnout. *Equal Opportunities International*, 27(8), 677-691. doi: 10.1108/02610150810916749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doi: 10.1207/s15327752jpa6601_2
- Schaufeli, W. B., Leiter, M. P., & Maslach, C. (2009). Burnout: 35 years of research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14(3), 204-220. <https://doi.org/10.1108/13620430910966406>
- Schaufeli, W. B., Leiter, M.P., Maslach, C., & Jackson, S.E. (1996). *The MBI-General Survey*. In C. Maslach, S.E. Jackson, & M.P. Leiter (Eds.), *Maslach Burnout Inventory*.
- Shapiro, J., Zhang, B., & Warm, E. J. (2015). Residency as a social network: burnout, loneliness, and social network centrality. *Journa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7(4), 617-623. doi: 10.4300/JGME-D-15-00038.1
- Shin, J. Y., Kim, E., & Ahn, J. (2022).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living a calling, burnout, exploitation, and work - life imbalan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4), 816-830. <https://doi.org/10.1177/0894845321994168>
- Soares, J. J. F., Grossi, G., & Sundin, Ö. (2007). Burnout among women: associations with demographic/socio-economic, work, life-style and health factor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0, 61-71. doi: 10.1007/s00737-007-0170-3
- Tlili, M. A., Aouicha, W., Sahli, J., Testouri, A., Hamoudi, M., Mtiraoui, A., ... & Mallouli, M. (2021). Prevalence of burnout among health sciences students and determination of its associated factors. *Psychology, health & medicine*, 26(2), 212-220. doi: 10.1080/13548506.2020.1802050
- Üngüren, E., Tekin, Ö. A., Avsallı, H., & Kaçmaz, Y. Y. (2021). The moderator role of financial well-being on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and the COVID-19 anxiety on burnout: A research on hotel-sector employees in crisis. *Sustainability*, 13(16), 9031. <https://doi.org/10.3390/su13169031>
- Van De Schoot, R., Sijbrandij, M., Winter, S. D., Depaoli, S., & Vermunt, J. K. (2017). The GROLTS-checklist: guidelines for reporting on

- latent trajectory studi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4(3), 451-467.
<https://doi.org/10.1080/10705511.2016.1247646>
- Vargas Rubilar, N., & Oros, L. B. (2021). Stress and burnout in teachers during times of pandemic. *Frontiers in psychology*, 12, 756007.
<https://doi.org/10.3389/fpsyg.2021.756007>
- Wang, J., & Wang, X. (20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John Wiley & Sons.
- Zhang, L., Li, M., Yang, Y., Xia, L., Min, K., Liu, T., ... & Liu, H. (2022). Gender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of burnout and its correlates among Chinese psychiatric nurses during the COVID 19 pandemic: A large sample nationwid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31(6), 1480-1491.
doi: 10.1111/inm.13052

1차원고접수 : 2024. 05. 14

2차원고접수 : 2024. 10. 11

최종게재결정 : 2024. 12. 24

Trajectories of Job Burnout Among Korean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Study Using Latent Growth Analysis (LCGA)

Yejin Kim Shi Hyeong Kim Dasong Jung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potential groups according to the trajectory of job burnout changes in adults during the COVID-19 period, examin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type of change, and identify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for each type. To this end,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was conducted on 381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categorize changes in job burnou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nal four groups were found to be the most appropriate, and each group was named 'recovery group', 'delayed burnout group', 'resilience group', and 'chronic burnout group' according to the pattern of chang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type of change in the development trajectory of job burnout, it was found that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delayed burnout groups and resilience group, and women's gender and high economic level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elastic groups. Finall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across job burnout change types showed that elastic groups consistently reported high life satisfaction in all survey periods. In addition, in the case of lonelines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points of time, but overall loneliness was high in the order of delayed burnout, recovery, and resilience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seeking basic data an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mental health of adults in Korea in future infectious disease situations.

Key words : COVID-19 pandemic, job burnout, life satisfaction, loneliness, latent class growth model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

제1조 저작물의 표시

논문 제목: _____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자(들)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한국심리학회에게 양도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 ① 저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 ② 저자(들)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 ③ 저자(들)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 ③ 위 사항에 대한 이용은 한국심리학회에서 학술지를 발행한 후에 가능하다.

제4조 보증 및 책임

- ①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 1)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 2)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 3)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4)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갑'은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절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 ②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성명	소속	이메일
제 1 저자			
제 2 저자			
제 3 저자			
제 4 저자			
제 5 저자			

- ※ 논문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본 위원회에서 수신한 교신저자의 투고 이메일은 모든 저자들이 연구자 윤리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심사료와 게재료에 대한 규정을 모든 저자가 확인해주십시오. [관련규정 아래 붙임]
- ※ 교신저자에게는 다른 공동저자들과 이 저작권 동의서에 기술된 모든 사실을 투고 전에 반드시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2024. . .

한국심리학회 귀하

논문작성 양식

작성양식은 한국심리학회에서 기획하여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 2판(2012, 박영사)”에 따른다. 그 출판 지침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영문 작성의 경우 미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최근 지침에 따른다.

1. 기본 사항

제목 및 초록은 1단 편집, 본문은 2단 편집 (단 간격 5.0mm)

단, 심사용 논문에서의 본문은 1단 편집도 무방하나, 게재 확정 후에는 반드시 2단으로 제출

편집용지: A4

용지 여백: 위쪽 37mm, 아래쪽 38mm

왼쪽 35mm, 오른쪽 35mm

머리말 13mm, 꼬리말 12mm

용지 방향: 좁게

문단모양: 문단 시작은 두 칸(한 글자)만큼 띄고 시작.

줄간격 160%

마침표 다음: 한 칸 띄도록 (두 칸이 아님)

본문, 참고문헌: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국문초록, 영문초록: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쪽수 표시

2. 세부 형식

제목	*휴먼명조, 16호, 진하게, 가운데 [‘제목’ 다음에 두 줄 띄우십시오]
국문초록 시작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국문초록’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주요어	*맑은고딕, 9호, 보통모양 [‘주요어’ 다음에 두 줄 띄우십시오]
본문 시작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 첫줄은 두 칸 띄고 시작 여기서부터 2단 시작 (좌우 양단으로 편집함. 단 간격은 5mm)
본문소제목	*맑은고딕, 10호, 진하게, 양쪽 혼합 [‘본문소제목’이 끝나면 한 줄 띄우십시오]

방 법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 방 법 ’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 등	*맑은고딕, 10호, 진하게, 양쪽 혼합, 좌측 첫째 칸에서 시작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의 내용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연구대상, 측정도구, 절차의 내용’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결 과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 결 과 ’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결과의 내용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우고 시작
표 1. 표 제목	*맑은고딕, 9호, 보통모양, 표 제목은 표의 위쪽 좌측에, 제목이 길어서 두 줄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
그림 1. 그림 제목	*맑은고딕, 9호, 보통모양, 그림 제목은 그림 아래쪽 좌측에
논 의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 논 의 ’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참고문헌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 참고문헌 ’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참고문헌의 내용	*휴먼명조, 10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 첫 줄부터 여백;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첫째줄; 내어쓰기 4 정렬; 양쪽 혼합
[영문초록]	
영문제목	*휴먼명조, 16호, 진하게, 가운데, 페이지를 바꾸어서 시작 [‘ 영문제목 ’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영문초록시작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영문초록시작’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i>Keywords:</i>	*휴먼명조, 9호, 이탤릭체, 양쪽 혼합, 첫 칸을 띄지 않고 시작 문단모양: 왼쪽 3, 오른쪽 3 [부록이 있을 경우 페이지를 바꾸십시오]
부 록	*휴먼명조, 11호, 진하게, 가운데 [‘ 부 록 ’ 다음에 한 줄 띄우십시오]
부록의 제목	*휴먼명조, 10호, 진하게, 가운데 (부록이 여러 개인 경우 부록마다 일련번호를 붙임)
부록의 내용	*휴먼명조, 9호, 보통모양, 양쪽 혼합

3. ANOVA(Analysis of Variance) 결과에 대한 제시

평이한 다원설계(factorial design)까지는 본문에 풀어쓰고 유의한 경우 유의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F,

df , p , MSE , 및 효과크기(η^2 , ω^2 , d , f 등)를 제시한다. 그러나 설계가 복잡해질수록(예: 집단내/집단간, 위계적 설계 등) 분석의 전문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ANOVA표를 제시한다. 이 때 MSE 를 제외한 SS 와 MS 는 생략하되 효과크기는 반드시 제시한다. ANOVA표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ANOVA표의 예시)

변산원	df	F	η^2	p
<u>집단간</u>				
인지(A)	2	.80	.05	.52
감정(B)	1	5.57*	.14	.03
AxB	2	1.64	.18	.20
집단내 오차(S/AB)	30	(20.05)		
<u>집단내</u>				
시점(C)	4	1.52	.05	.20
CxA	6	2.52*	.22	.03
CxB	3	3.98**	.26	.01
CxAxB	6	0.30	.02	.70
집단내 오차(CxS/AB)	120	(1.4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 $p < .05$, ** $p < .01$

4. 편집디자인 적용 후 검토 시 주의사항

저자의 수정사항을 파란색 또는 붉은색 글씨로 표시한다. 단, 파일의 환경이나 서체 등은 그대로 두고 내용 수정만 한다.

5. 저자의 이름과 소속

투고하는 원고에 저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투고 시 저자 정보, 사사표기 및 연구지원 정보, 학위논문의 출판에 대한 알림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양식 투고 신청서에 기록하며 투고하는 원고에서 생략한다. 게재 확정 후 편집단계에서 저자 이름과 소속 정보를 원고에 기록한다.

한국심리학회 임원진

운영위원

회 장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부 회 장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부 회 장	한영석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총 무 이 사	용정순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재 무 이 사	최혜만 (가천대학교 심리학과)
홍 보 이 사	김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대 외 이 사 1(국내)	서동기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대 외 이 사 2(국외)	조이수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정 보 이 사	박준성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학 외 이 사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상임위원장

편집위원회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회	조영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학술위원회	한영석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심리검사심의회위원회	박준호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학회발전기획위원회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자격제도위원회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공공정책위원회	윤상연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회보편집위원회	곽세열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재난심리위원회	최해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심리사법위원회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학문후속세대교류위원회	김현식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홍보위원회	김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제교류위원회	조이수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시위원장

자살예방위원회	고선규 (임상심리전문가 그룹 마인드웍스)
심리지원정책위원회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청년정책위원회	김향숙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대중화위원회	박준성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심리학R&D지원위원회	최준식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당연직이사

전임학회장 최진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감사

운영감사 정우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재무감사 원성두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분과학회장

제 1 분과 임상심리학회	배대석 (영남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제 2 분과 상담심리학회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제 3 분과 산업및조직심리학회	한영석 (호서대학교 심리학과)
제 4 분과 사회및성격심리학회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제 5 분과 발달심리학회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제 6 분과 인지및생물심리학회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제 7 분과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서경현 (삼육대학교 심리학과)
제 8 분과 건강심리학회	조성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제 9 분과 여성심리학회	한영주 (벤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교)
제 10 분과 소비자·광고심리학회	강정석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제 11 분과 학교심리학회	남숙경 (국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제 12 분과 법심리학회	최이문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제 13 분과 중독심리학회	서보경 (울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제 14 분과 코칭심리학회	정은경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제 15 분과 심리측정평가학회	김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제 16 분과 디지털심리학회	신민섭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